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느끼면서, 현장의 실정에 맞게 내용을 구성하여 실천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역시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다.

2003년 반전 평화 교육은 이러한 두 가지 변화를 결합시켜주는, 학교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반전 평화교육을 '대중적인' 운동으로 전개되도록 하는 데 성공하였다. 반전 평화 배지 달기, 화해 평화 사탕 나누기 등의 방법은 반전 평화교육의 매개인 동시에 교사와 학생들이 반전평화, 화해에 작지만 직접 참여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기에 기존 평화교육 연구 실천의 한계를 넘어 학교현장의 광범한 참여를 끌어낼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때문에 2003년 반전평화교육 경험은 한국 현실에서 반전 평화교육의 가능성을 확인 한 것인 동시에 어떻게 해야 반전평화교육이 널리 확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도 제시한 의미 있는 경험이라 하겠다.

2) 반전 평화교육과 통일운동의 만남

2003년 반전 평화교육을 교육주체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두드러진 특징은 전교조 통일운동 추진 주체(통일위원회와 통일교사모임)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간 학교 현장에서 통일운동 추진 세력이나, 통일교육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교사들의 그룹은 적지 않게 존재하여 왔으나, 평화운동 추진 세력이나, 평화교육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교사들의 그룹은 상대적으로 빈약하였다. 그런데 2003년 반전 평화교육은 전자에 의해 평화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폭넓게, 그것도 매우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이것은 물론 한반도의 전쟁 위기 고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반전 평화교육이 한국 통일운동의 주요한 과제라는 의식이 보편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뤄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한국 사회운동에서 그간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던 평화운동과 통일운동의 상호 관계,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상호 관계의 관계 정립과 관련해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는 성과를 남겼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첫째, 한국 사회에서 평화운동, 평화교육의 가장 큰 주체역량은 통일운동 세력, 통

일교육 추진 주체라는 점을 시사한다.

세계적으로 평화운동과 평화교육은 나라마다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 따라 매우 다양한 폭을 가지고 진행되었듯이, 한반도에서 평화운동과 평화교육은 남북의 역사와 현실을 가장 크게 규정하는 분단 상황과 떼어내 따로 성립할 수 없다. 즉 분단 상황과 체제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평화운동과 평화교육은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위기, 그리고 통일 문제를 떠나 존재할 수 없으며, 한국 사회에서 반전 평화 문제와 반전 평화교육 문제에 통일운동 세력보다 더 열정적이고 규모 있게 접근하는 다른 세력이 존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2003년 반전평화교육은 한국 사회에서 평화운동, 평화교육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통일운동, 통일교육 추진 세력임을 평화운동, 평화교육 추진 주체들은 유념해야 할 것이라는 교훈을 주었다.

둘째, 통일운동, 통일교육은 평화운동과 평화교육의 철학과 관점, 방법을 껴안고 가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 동안의 통일운동과 통일교육은 직접적으로 통일 문제와 관련을 갖는 문제에 주된 관심을 기울여 온 경향이 있었다. 때문에 세계적으로 오랜 역사를 가진 평화운동, 평화교육 문제에 대해 기존의 통일운동, 통일교육은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최근의 여중생 사건, 한반도 전쟁 위기는 '통일'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해왔던 다수 민중들과 청소년들이 민족적 자존과 평화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게 만들었으며, 이런 대중적인 정서의 변화는 기존 통일운동으로 하여금 민족적 자존과 평화의 문제를 통일운동과 통일교육의 주된 화두로 만들어가게 하지 않을 수 없게 한 측면이 있다. 이는 한반도의 통일문제가 평화 문제와 뗄라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한반도의 평화 문제가 세계의 평화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현실의 반영이다.

이것은 한국 사회에서 통일운동과 통일교육은 이제 통일과 직접적 관계를 가진 남과 북의 관계, 통일 정책 등에 대한 관심에 한정된 운동과 교육을 벗어나서, 평화운동, 평화교육의 철학과 관점, 방법을 껴안고 나가야 한다는 과제를 명백하게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03년 반전평화교육은 통일교육이 단순히 남북 간의 정치적 문제나 민족적 문제의 차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평화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그리고 함께 살

아갈 남북의 주민들의 삶의 문제로, 나아가 전지구적 인류의 삶의 문제로 접근하는 철학과 관점,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평화교육의 교육적 패러다임을 포용하여, 교육 철학적 담론을 가진 풍부한 교육으로 거듭나야 할 과제를 안겨주었다고 하겠다.

3) 2003 반전평화교육이 '평화교육'에 남긴 성과

전쟁과 평화를 바라보는 관점의 교정이야말로 평화교육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겠다. 2003년 반전 평화교육은 이런 측면에서 교육적으로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1) 전쟁 피해자의 입장에서 전쟁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확산되었다.

2003년 반전 평화교육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자료는 아프카니스탄과 걸프전에서 부상당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영상이나 사진 자료였고, 또 이런 자료가 학생들에게 전쟁 반대에 대한 공감을 가장 많이 불러왔다. 학생들은 이런 자료들을 통하여 주민과 어린이의 입장에서 전쟁을 다시 보고, 전쟁으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누가 짊어져야 하는지를 알기 시작했다.

이는 지금까지 전쟁의 문제를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국가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취급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요한 관점의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한국의 교과서는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 전쟁의 문제를 국가적 문제로 취급해왔고, 전쟁에서 민간의 피해는 국가 안위를 위한 정당한 희생으로 간주하는 서술을 해왔다. 그리고 한국 전쟁과 그 이후 남북 대결의 문제 역시 이데올로기적으로 국가안보적 문제로 접근해왔고, 이 대결로 인한 민간의 피해 문제는 부차적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을 전쟁으로 고통 당할 주민과 어린이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논리와 체계화되지 않았지만, 반전 평화교육이 국가안보적 관점을 넘어 인간 안보와 주민 안보의 관점에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으로서 중요한 교육적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이는 앞으로 반전 평화교육이 '인간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전개될 때 힘있는 교육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며, 평화운동이 마이노리티(minority) 관점으로 전개될 때 계급과 지역을 넘어 세계적인 연대로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한다.

(2) '나'의 입장에서 전쟁과 평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확산되었다.

2003년 반전평화교육에서 가장 폭발적인 인기를 끈 자료는 샬롯 엘더브론

(Charlotte Aldebron) 편지, "저는 여러분이 죽이려는 바로 그 아이입니다."이다. 이 자료가 널리 활용되었다는 것은 이라크 전쟁을 대하면서 학생들이 '나'와 이라크의 어린이를 연결하여 사고하고, 이라크 어린이의 입장이 되어 보면서 '나'를 반성적으로 성찰하기 시작하였음을 말해준다.

이것은 90년대 들어 개성화, 개별화되어가던 청소년들의 의식이 보편적 가치와 접맥되기 시작하였다는 큰 교육적 의미를 갖는다.

'우리'를 앞세우던 예전 세대와 달리, 개인주의적 소비 사회의 발달, 특히 사이버 공간의 발달과 더불어 90년대 청소년들은 '나'를 앞세우는 의식이 강해졌다. 그리고 그것은 청소년들의 개인주의화, 개성화(소비성향 측면에서)를 촉진하고, 청소년으로 하여금 권위주의, 기존 가치관으로부터 이탈하게 하는 현상을 강하게 보여주었다⁵⁾. 그런데 2000년대 들어 여중생 사건, 미국의 이라크 침공 사건 등 사회적이고 보편적인 문제들을 만나면서 학생들은 이 문제들을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바라보는 계기를 갖게 된다. 즉 예전 세대가 여중생 문제, 전쟁의 문제를 '우리'란 입장에서 당위적이고 도덕적으로 바라보았던 데 비해, 지금의 청소년들은 '나'의 입장에서 내가 왜 전쟁을 반대해야 하는지, 내가 왜 촛불을 들고나서야 하는지 주체적으로 사고하면서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네티즌으로서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촛불시위 참여, 학교 내 반전 평화 선전홍보활동, 반전 배지의 폭발적 보급 등은 청소년들이 이렇게 '나'의 입장에서 주체화된 가치 문제로 반전평화에 접근하고 있다는 단초를 보여준 것이다⁶⁾.

이렇게 청소년들이 반전 평화 문제를 '나'와 '보편적 가치'의 만남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평화운동과 평화교육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훌륭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개별화되면서도 주체화되어 가는 현대 청소년들이 어떻게 보편적인 가치를 자신의 가치로 내재화하여 가는지, 그리고, 그들의 사회 참여와 사회 운동이 어떤 방식으로

5). '나'를 앞세우는 이런 청소년들의 의식은 청소년들의 개인주의화, 개성화(소비성향 측면에서)로 현상함으로써 학교 교육 상황과 관련하여 가치 상실 세대로 이해되었고, 기존 권위를 파괴하는 성향을 보임으로써 학교 붕괴 담론을 만들어내는 배경이 되었다.

6). 이 문제는 교사들이 그런 의식을 갖고 반전 평화교육에 임했으나 아니냐와 다른 문제이다. 교사들의 교육 방식과는 별개로 청소년들에게 반전 평화의 문제가 그런 의식으로 이해되고 수용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2003년 반전 평화교육은 당위적이고 윤리적으로 접근하던 기존의 정치교육으로서의 평화교육과 구별되는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할 수 있다.

(3) 교육과 실천의 결합이 효과적인 평화교육의 방법임을 확인해주었다.

2003년 반전평화교육에서 엿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크던 작던 자그마한 실천을 제시하고 이를 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전쟁을 반대하는 마음을 표현하여 전쟁반대 배지를 달고 다니게 한 것, 화해 평화의 자그마한 실천을 위해 화해사탕을 갈등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게 한 것 등 반전평화교육의 출발이 이러한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실제 수업에서는 이러한 단순한 실천을 넘어 자발적인 실천의 모범들이 많이 창출되었다. 반전배지를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고, 반전 배지 배포와 함께 모금운동이 진행되기도 하였으며, 전쟁반대 평화시위에도 용기 내어 참여해 보는 경험들이 여러 곳에서 창출되었다. 교사들에 대한 전교조 통일위원회의 접근도 유사하였다. 평화선언, 반전 배지, 평화 사탕 모두 이 활동의 의미를 발견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로 참여하는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경험을 통하여 반전평화교육은 참가자들(교사-학생)에게 양심만으로 전쟁을 막을 수는 없으며, 양심적인 개개인의 크고 작은 '행동'이 현실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느끼고 배우게 하였다는 점에서 평화교육의 방법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의미를 제시하여 주었다고 생각한다. 교육과 주체적 실천의 결합이 평화교육의 주요한 방법임을 확인하게 해준 것이다.

3. 2003 반전평화교육이 남긴 한계와 과제

2003 반전평화교육이 위와 같은 여러 가능성을 제시하며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었던 평화의 불길이 좀 더 깊은 평화에 대한 공론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듯이 반전평화교육에 대한 관심은 이라크 전쟁이 쉽게 끝난 뒤에는 금방 식어버렸다.

왜일까? 운동적 측면이나 교육적 측면에서 2003년 반전평화교육이 안고 있는 한계들 때문일 것이다. 우리들이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다.

1) 이슈 중심의 일회적 교육 - 평화교육 주체의 부재

2003년 반전평화교육은 한반도 전쟁 위기 의식의 고조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라는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의 정서 변화와 맞아떨어지면서 크게 활성화되었다가 그런 계기가 소실되면서 그 열기가 사그러들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평화교육 담론과 방법론 측면에서 연구 계승하려는 움직임도 거의 없다. 이것은 2003년 반전평화교육이 평화교육 담론을 더욱 발전시키는 기제로 작용하지 못하고, 1회적 계기 교육으로 그치고 말았음을 말해준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평화운동, 평화교육 주체가 거의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실제 학교 현장에는 평화교육의 담론과 철학과 방법론을 자기 것으로 하여 평화교육운동을 전개하는 평화교육의 주체가 거의 없으며, 2003년 반전평화교육은 통일운동, 통일교육 주체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수행되었는데, 이들은 평화교육의 담론과 철학, 방법론을 공부하거나 그로 무장되어 있지 않다. 이런 교육 주체의 현실 때문에 2003년 반전평화교육의 계승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런 문제의 해결- 평화교육 주체의 형성, 통일교육 세력의 평화교육 철학으로의 무장-이 앞으로 평화교육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2) 교육적 측면에서의 반성

이번 반전 평화교육에서는 평화교육 방법론 측면에서 반성해야 할 점도 적지 않게 대두되었다.

(1) 평화적 심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학적 연구와 배려의 빈약함이 드러났다.

'반전평화교육'의 실천 노력 중에는 나이 어린 유치원생들에게 'Fucking U.S.A.'라는 노래를 암기해서 부르게 하는 사례가 있었다. 물론 예외적인 일이기에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교사 평화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실에서 행해지는 '비판적 사회 읽기'가 어떤 연령층을 대상으로, 어떤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도입되어야 하는가를 매우 신중하게 검토,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매우 중요한 사례라서 다시 기억을 되짚는 것이다. 평화를 위한 교육을 하고자 하는 이들이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평화교육은 삶과 사회를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

신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이 그러한 문제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지 않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길러주어야 하며, '비판적 사회 읽기'는 연령에 따라, 상황에 따라 신중하고 융통성 있게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게는 '비판적 사회 읽기' 보다는 삶을 긍정적으로 보고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경험시켜주는 것이 훨씬 더 평화를 위한 교육에 합당한 접근 방식이다).

이번 반전평화교육에서 학생들에게 제시된 자료는 초중고를 비롯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과 자료들이었다. 물론, 이 자료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화하는가는 학령에 따라, 또 학습자의 가지 인식의 정도에 따라 달랐겠지만, 평화교육의 자료들이 성장기에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의 학령에 따른 적합성의 문제가 거의 검토되거나 연구되지 않은 채 자료로서 학생들에게 제공되었던 문제는 평화교육의 발전과 관련하여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라크 전쟁 기간 내내, 학생들이 잔인한 전쟁 영상과 화면에 노출되어 있었던 현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라크 전쟁 기간의 TV, 신문 보도는 폭력적 장면으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만화영화보다 훨씬 더 강한 폭력성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언론보도에 대해 평화운동과 평화교육은 이런 보도가 아이들의 정서와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⁸⁾.

물론 전쟁의 참혹함을 담은 자료들은 전쟁 반대의 기운을 올려 가는 데 큰 힘이 되었고, 그런 점에서 반전 평화교육의 자료로서 널리 활용되었다. 그러나 평화교육이 장기적으로 학생들의 평화적 심성을 길러내고 평화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가는 인간을 육성해 가는 것이라면, 그런 심성과 의지를 기르기 위한 교육학적 배려가 연구되고, 그에 기초하여 교육자료가 준비되고 제공되는 수준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7). 고병현, <평화를 위한 교육을 하고자 하는 이와 경험 나누기>

8). 전쟁에 대한 폭력성이 강한 언론 보도와 각주 7의 윤금이 사건 사진 자료 제공에 대한 비판은, 언론의 모순된 논법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언론은 자신들의 보도자료가 학생들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음에도 교사들이 제공하는 교육자료와 구분하여 후자의 폭력성만 부각하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2) 학생들의 주체적 성찰 능력을 배양하려는 교육방법적 접근이 부족하였다.

이번 반전평화교육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이라크 전쟁에 대해 일방적으로 해석해주는 시도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 교사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왜 부당한지 일방적으로 설명하거나, 이라크 파병 문제에 대해 한쪽의 입장에 서서 왜 그런지를 학생들에게 설명하여 설득하려는 식의 시도들이었다.

이는 미국의 일방주의적 전쟁의 강행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반전 평화교육의 방법보다 내용이 크게 부각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학생들은 반전평화교육 이전에, 비록 어린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언론과 방송매체, 인터넷, 그리고 우리 사회 주변의 여론을 통하여 전쟁에 대한 기본적인 소식을 접하고 있었고, 미국의 전쟁 의도에 대한 초보적 판단과 자기 나름의 가치 판단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⁹⁾. 때문에 이 시기 반전평화교육에서는 내용보다 전쟁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주체적인 판단, 자기 성찰을 끌어내고, 학생들의 실천적 인식을 높여내는 것이 중요한 교육적 과제였다. 전교조에서 만든 반전평화수업자료나, 일부 교사들에 의해 시도된 반전평화교육은 이런 점에서 교육방법적 접근이 부족하였다.

2003년 반전평화교육의 경험은 평화교육의 내용 못지 않게 성찰의 능력을 개발하는 평화교육의 방법론에 대한 고민도 깊이 해야 한다는 반성을 하게 한다.

II. 학교 통일교육과 교사들의 새로운 시도

미흡한 것이지만 그 이전에 비해 훨씬 대중적이고 폭넓게 전개되었던 2003년의 반전평화교육이 있기까지 학교교육에서 평화교육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정부에 의해 계획되고 제시되었던 반공교육 또는 통일교육이 존재하였을 뿐이다. 그러다가

9). 필자의 교실 수업의 경험에 의하면, 이라크 전쟁 발발 직전, 학생들의 인식은 이미 95% 이상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었으며, 대다수 학생들이 미국이 석유 때문에 이라크를 침공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90년대에 들어 정부에 의해 제시되는 기존 통일교육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교사들의 새로운 통일교육 시도들이 있었고, 그러한 시도들의 결실이 2003년에 와서야 한반도 전쟁위기라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반전평화교육으로 꽃핀 것이다. 따라서 한국 학교교육에서 평화교육의 담론과 방법론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에 의해 제시되는 반공 또는 통일교육의 변화와 교사들이 어떤 시도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하고자 한다.

1. 학교 통일교육의 변천사와 현재의 실정

1) 학교 통일교육의 변천 과정

학교 통일교육은 1988년 4차 교육과정까지는 반공교육, 멸공교육, 승공교육 등의 여러 이름으로 불리웠던 반공교육이었으며, 5차 교육과정에서 '통일안보교육'으로, 6차 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으로 정식 명명되었다.

1980년대 중반까지의 반공교육은 상대방(북한 및 공산진영)의 이념과 체제의 한계와 모순을 비판하면서 북한 체제를 부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우리(남한 및 자유진영)의 이념과 체제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신념을 내면화하려는 교육으로서 북한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대결의식과 적대감을 고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전적인 부정과 남한에 대한 전적인 긍정이라는 비타협적인 흑백논리에 기초하여 이루어졌고, 북한에 대한 적대감이나 경계심을 고취시키는 '부정적 감성'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시도되었다¹⁰⁾.

이런 반공교육은 1987년 민주화운동의 대약진과 1989년 소련의 변화 등 동서 냉전의 해체라는 국제 정세 변화에 조용하여, '5차 교육과정'에서 '통일안보교육'으로 그 명칭이 바뀌고, 공산체제 및 현실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민주시민정신 고취 등의 내용이 보강되었고, 북한을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인 동시에 북한은 언젠가는 합쳐서 함께 살아야 할 형제라는 이중성을 띤 대상으로 교육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공산당 = 빨달린 도깨비' 식의 비합리적 교육내용들이 일부 개선되었다. 그러나 통일안보교육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북한 공산주의 집단을 몰아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추구해야 한

10). 한만길, 『학교 통일교육 내용의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7, p.21.

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공교육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것이다.

김영삼 정부 들어 '6차 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안보교육이 통일교육의 하위 개념화되고, 교과서에서 이념 비판 부분의 내용이 축소되고, 1993년 초 이전보다 상당히 진보적인 '통일교육 지침'이 만들어져 학교로 배포되기도 하는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념 비판 부분의 축소를 대체할 만한 통일교육 내용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통일교육이 양적으로 축소되는 결과를 낳았고, 북한의 핵 위기나 김일성 사망 이후 조문파동 등으로 촉발된 남북 대립은 이러한 변화를 학교 반공교육의 질적인 변화로 이끌지 못하였다.

1997년부터 7차 교육과정이 시작되어 2003년까지 교과서 개편이 이루어진다. 이런 7차 교육과정 개편 중에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 통일교육에서 '화해와 평화통일'의 중요성을 중시하는 경향은 강화되었고, 이념적, 체제 대결적 내용은 상당히 지양되었지만, 학교통일교육의 양과 내용은 오히려 축소되었다.

6차 교육과정에서는 추구하는 인간상으로서 '자주적인 사람'이라는 항목을 통해 평화 통일을 명시하고 있었지만, 7차 교육과정에서는 추구하는 인간상으로서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이라고 간략하게 명시하고 있는데,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에서 평화 통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다만 그 세부적인 내용인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지침'에서 범교과 교육의 하나로 통일교육이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¹¹⁾. 게다가 그간 학교 통일교육을 전담하다시피 해왔던 도덕(윤리)과의 수업 시수와 교과서 분량이 축소되면서 통일교육의 내용은 오히려 축소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통일관련 '특별활동'과 '7차 교육과정'의 학교 재량시간을 활용한 통일교육을 권장하고 있다.

2) 학교 교과 통일 교육의 내용

위와 같은 역사 때문에 학교 통일교육은 도덕(윤리)과를 중심으로 체계성과 연관성을 갖고 교육되도록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과와 국어과에 일부 내용이 삽입되어 있다. 그외 교과에서는 통일 관련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11). 한만길, 극등문제연구소 사이버통일교육강의 원고, 2001.

교과서 내용을 기준으로 할 때 학교 통일교육 내용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내용의 양이 매우 빈약하다는 것이다.

초등학교에서는 학년 당 2-3 소단원 정도에 불과하며, 중고등학교에서는 도덕(윤리)에서만 한 단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사회과의 경우 위 표에서는 비중 있게 다루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남한 사회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북한 사회의 문제나 통일 문제를 다루는 정도이다. 때문에 학생의 수업을 기준으로 볼 때, 통일 문제를 다루는 시간은 매우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통일교육의 양적 빈약은 학교 통일교육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있다. 각종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의 통일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TV 등 언론이 절대적이며, 학교 교육은 평균 10~20%선에 머물고 있다.¹²⁾

둘째, 관련 내용이 관념적이고, 정책적이고 정치적인 내용 중심이라는 점이다.

6차교육과정의 도덕 교과서 통일 관련 내용은 주로 통일의 필요성(당위성, 염원), 분단과 전쟁의 책임, 남한 체제의 우월성, 통일 사회의 미래상, 그리고 북한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체제를 주로 다루었다. 체제 비교적, 정치적 내용 중심의 통일교육은 여전히 체제 대결적인 의식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화해적이고 평화적인 통일교육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자신의 생활과 거리가 먼 이야기로 느끼게 해주는 측면이 있어 통일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다. 성인 지식인도 이해하기 어렵고 논쟁의 소지를 안고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초·중·고등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통일 문제를 골치 아픈 문제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떨어뜨리며, 나아가 상호 합치하기 어려운 체제, 이념 중심으로 통일 문제를 다루는 것은 통일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잠재적 의식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7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남한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체제 비교적인 내용이 크게 줄어들고, 비교적 개관적으로 남북을 비교하는 내용이 크게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그러나 7차교육과정 교과서의 내용 역시 관념적이고, 정책적이며, 정치적인 내용

12). 전교조, '통일을 생각하는 서울교사모임', 『남북화해시대 통일교육 자료집』, 2000, p.15.

중심으로서 정책적, 학술적으로 연구된 결과를 학생들에게 내리매김 하는 한계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¹³⁾. 이는 통일교육과 관련한 내용이 많은데, 이를 짧은 수업 시간 속에 모두 전달하려 하다보니, 교육 방법보다는 '내용'의 전달에 치중한 결과라 판단된다.

3) 교과외 학교 통일교육의 내용과 특징

교과 외 학교 통일교육 활동은 학교행사, 클럽활동, 단체 수련활동로 대별할 수 있다. 학교행사는 대개 교내 행사, 위탁 교육 등이 있다.

교내 행사는 일반적으로 6·25전쟁을 기념하여 6월의 학교행사로 실시하는데, 주로 웅변대회('나의 주장' 발표대회), 포스터(그림) 그리기 대회, 글짓기 등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런 행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¹⁴⁾. 참가를 원하는 일부 학생만 참여시키거나 반에서 그 분야에 소질이 있는 한두 명의 학생에게 참여하게 하여 그중 일부를 선발해 시상하는 것이 보통이다. 통일교육 시범학교(연구 학교)에서는 '통일염원한마당' 형태로 각종 경기 개최¹⁵⁾, 각종 발표대회(글짓기, 표어짓기, 나의 주장발표, 통일노래부르기, 통일가족신문 만들기) 개최¹⁶⁾, 통일퀴즈

13). 7차교육과정 통일교육의 완성판이라고 할 수 있는 고등학교 도덕 교과서를 보면 후반부 절반이 통일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목차를 보면 기존의 정책, 당위적 내용 중심의 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1. 민족분단과 남북한 사회 현실

(1) 민족 분단의 과정, (2) 민족 분단과 남북한 사회문화의 비교, (3) 민족 분단의 극복방향

2. 남북한의 통일정책과 통일의 과제

(1) 우리의 대내외적 통일 환경, (2)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 (3) 통일 실현을 위한 우리의 자세

3. 민족공동체의 변명과 통일한국의 모습

(1) 민족공동체의 당면 과제와 해결, (2) 통일 한국의 미래상, (3) 세계 속의 바람직한 한국인상

14). 한국 교육개발원, 앞의 책, p.316.

15). 월등초등학교, 『통일교육연구학교 보고서』, 1999, (한국교육개발원, 앞의 책에서 재인용).

16). 부산, 신금초등학교, 2000, (한국교육개발원, 앞의 책에서 재인용).

대회 개최 등으로 진행하지만, 이런 노력들은 다른 학교로 거의 전파되고 있지 못하다.

글짓기, 독후감 대회 등은 외부 단체의 지역 또는 전국 대회와 연계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자유총연맹>, 경찰서 등의 행사와 연계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관련 단체의 성향에 따라 냉전적 내용의 작품이 시상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위탁교육은 외부 강사 초청이나, <자유총연맹> 등 통일교육프로그램 운영 시설에 학생을 보내 교육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자유총연맹>은 2001년 4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의 고등학교 1~2학년생 33만 6천명을 교육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1,353회 ; 소집 374회, 방문 865회)¹⁷⁾,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하 '민주평통'이라 칭함>도 2000년 3월부터 5월까지 1,154개교 62만 8,621명을 교육하였고, 2001년 3월부터 6월까지 577개교 34만 1,441명을 교육하였다고 한다¹⁸⁾. 현재 학교에서 외부 강사 초청 교육이나 위탁 교육은 <자유총연맹>과 <민주평통>에 거의 의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널리 이루어지고 있는 위탁 통일교육은, 강사가 다양하냐 만큼 그 구체적인 강의 내용이나 교육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지만, 강사가 청소년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교육내용이 당위적이고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리라 추정할 수 있다.

단체수련활동으로서의 통일교육은 대부분의 수련회나 수학여행을 오가는 여정에서 '통일전망대'나 '북한관', '전쟁기념관' 등을 찾아가보는 형태로 진행된다. 학교에 따라서는 1일 체험학습으로 '전쟁기념관'이나 '이승복 기념관' 등에 방문학습을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학생이 이런 곳을 한두 번 정도 방문하였을 정도로 널리 확산되어 있는 통일교육활동의 일환이다. 그런데, 이런 통일교육 체험학습지들은 주로 한국 전쟁 시기의 북한 공산군의 만행을 담은 자료들, 북한의 암담한 면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중심으로 꾸며져 있고, 전쟁과 분단의 또 다른 피해 즉 남측과 미군 측에 의한 피해의 장면이나 북측의 긍정적 측면을 보여주는 자료는 배제되어 있어, 북한에 대한 적개심과 북한 주민에 대한 동정심을 유발하는 승공 교육장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화해, 평화교육으로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클럽활동의 경우 '통일 시사반'이나 '통일반' 등의 형태로 일부 학교에서 만들어져

17). 자유총연맹홈페이지 www.kfl.or.kr

18). 「민주평통 20년사」, 민주평통홈페이지

활동하고 있는데, 통일교육 시범학교 운영이나 특별히 교사들이 관심과 열의를 갖고 실천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실천 사례라고 보기는 어렵다.

4) 학교 통일교육과 평화교육

이상 간략히 살펴본 바대로 학교 통일교육은 평화교육의 철학과 내용과 방법을 거의 담고 있지 못하다. 특히 내용적 측면에서 분단의 폐해, 평화의 문제를 우리 자신의 삶의 문제로 인식하는 관점을 거의 담고 있지 못하다.

다만 7차교육과정 개편 교과서에서 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데서 평화교육의 주요한 명제의 하나인 차이의 인정과 존중, 역지사지의 자세 등의 관점이 언급되고, 남북의 체제와 통일정책을 비교적 개관적으로 기술하려 노력한 점은 평화교육의 담론이 교과서 편찬에 영향을 미쳐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새로운 통일교육 내용과 방법을 만들기 위한 교사들의 노력

1) 교사들에 의한 새로운 통일교육의 노력 현황

교사들에 의한 새로운 통일교육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1990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통일교육분과'가 세워지면서이다. '통일교육분과'는 기존의 반공, 안보교육을 비판하면서, 교사 통일사랑방 학교 및 교사 통일교육 연수를 통해 평화 지향적 통일교육을 확산하고, '통일교육'이란 교육자료집을 발행하여 새로운 교육내용을 개발 보급하였다¹⁹⁾.

1994년 통일교육분과가 해소되고 <통일을 생각하는 서울교사모임>(이하 통일교사모임)이 발족되어 통일교육분과의 활동을 이어갔는데, 1998년 <통일교사모임>은 평화교육 이론과 통일교육을 접맥하려는 시도로서 '차별과 차이를 주제로 한 통일교육과정'을 연구, 실험교육을 실시하였고²⁰⁾, 1999년 '청소년 통일캠프를 실시하여

19). 이 때 자료집은 최소 매회 3,000부 이상 전국적으로 배포되었다

20). 이 연구는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을 학교 현장교육에 접맥하려는 최초의 시도일 것이다. 이 연구 실험의 결과는 이후 통일교사모임과 전교조의 새로운 통일교육론의 토대를 형성하였고, 정부 및 통일운동, 평화운동 단체에서 통일교육 방향과 내용을 잡아나가는 데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평화교육 방법론과 결합된 통일교육 체험학습을 실험하였다. 이 청소년 통일캠프는 2003년 5회째 진행하고 있으며, 인천, 경기, 경북, 충남, 광주 등 지역 캠프로 정착되어 청소년 체험학습 통일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²¹⁾.

이렇게 <통일교사모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교사 통일교육 활동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전교조>에 <통일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게 되었다. 현재 <전교조 통일위원회>는 16개 시도에 구성되어 있으며, 통일모임은 서울, 경북, 부산, 인천, 충남 등에 20여개가 만들어져 있다.

한편 이런 통일위원회, 통일교사모임 흐름과는 달리 평화교육연구회, 남북어린이어깨동무 평화교육팀 등에 참여하면서 평화교육을 실험하고 있는 교사들도 소수가 있다.

2) 교사들이 만들어가는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식

통일교사모임과 전교조는 2000년에 『남북화해시대 통일교육자료집』을 발행하여 약 1만부 정도 배포하였고, 통일교육 비디오 교육자료 3편을 제작하여 널리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2001년에는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란 책자를 발행한 바 있다. 이들 자료를 중심으로 교사 통일교육 단체의 통일교육 내용상의 특징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남북화해시대 통일교육자료집』은 그간의 통일교육을 냉전교육, 분단교육이라고 비판하면서 통일교육의 과제와 방향으로 ‘평화공존과 화해를 위한 교육’, ‘체제 공존의 통일교육’, ‘합리적 상호 이해교육’, ‘생활문화 중심 교육’, ‘가치관 중심의 통일교육’, ‘민족자주문화교육’을 제시하고 있으며²²⁾, 『이 겨레 살리는 통일』에서는 ‘민족자주교육’, ‘민족화해교육’, ‘평화교육’, ‘공존의 통일교육’을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²³⁾. 교사 통일단체는 통일교육은 주로 화해, 평화, 자주, 공존 등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생활문화 중심의 가치관 교육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전교조의 교사용 통일교육지침서로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은 제1부 ‘교사와 학생

21). 현재 청소년 통일캠프는 교사 단체만이 아니라 남북어린이어깨동무의 ‘평화캠프’ 등 사회단체의 평화캠프, 통일캠프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22). 전교조, 『남북화해시대 통일교육자료집』(2000,6), pp.21-25.

23). 전교조 통일교육위원회, 『이 겨레 살리는 통일』, 전교조, 2001, pp. 233-236.

을 위한 강좌’에서 통일교육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데, ‘시급히 교정되어야 할 편견, 고정관념’으로서 ‘분단비용·통일비용’, ‘안보교육’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학생용 교육자료로서는 <1. 화해 통일의 필요성, 2. 우리 주변의 전쟁과 분단의 피해, 3. 한반도 평화의 길, 4. 통일을 위한 남북의 소중한 합의들, 5. 화해,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자세> 등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이러한 교육내용 설정은, 교과서의 통일교육 내용과 달리, 통일교육의 초점을 통일 정책이나 북한 사회 비판이나 ‘바로 알기’보다는 분단으로 인한 피해의 자각을 통해 화해와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냉전적 분단의식을 극복하려는 자세와 태도를 형성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점은 영상 세대인 학생들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TV 방영물을 재편집하여 만든 통일교육 영상자료 내용에서도 확인된다. 통일교육 영상자료는 ‘분단의 역사’, ‘분단의 아픔-전쟁위기와 분단비용’, ‘북한 주민의 생활과 문화’, ‘6·15남북공동선언과 민족화해’, ‘이라크 전쟁과 주한미군’, ‘NO WAR’ 등 6편이며, 이후 필요한 자료를 계속 만들 예정이다.

이 책자 2부, 3부에서는 다양한 통일교육 사례를 싣고 있는데, ‘차이와 차별을 주제로 한 통일교육’, ‘문화이해지를 통한 북한 이해교육’을 구체적인 교육 방법과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런 내용을 응용한 다양한 교과 교육 지도 사례와, 특별활동, 재량활동 교육프로그램을 싣고 있다. 이 자료는 98년 통일을 생각하는 서울 교사모임이 연구한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을 접맥하려는 시도의 결과물로서 학교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는 통일교육의 내용이기도 하다.

한편 여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캠프’는 지역에 따라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구성되는데, 지적인 학습보다는 주로 통일의 마음을 형상화하는 집단 창작, 통일놀이, 민속놀이, 사진전 등 평화와 통일의 감수성을 기르기 위한 유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통일캠프는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의 접맥이 가장 잘 반영되어 나타나는 교사들의 통일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전교조는 어린이날 행사를 통일과 평화를 주제로 행사들을 배치하여, 6월 15일을 전후하여 지역에 따라 청소년 통일한마당 형태로 각종 놀이와 경연을 진행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한편 전교조 통일위원회와 통일교사모임은 이런 통일교육의 결과들을 총화하여 매년 겨울방학중 ‘통일교육 실천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로 3회 째를 맞고

있다.

3) 교사들이 만드는 새로운 통일교육의 성과와 한계

교사들의 새로운 통일교육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크게 확산되면서, 부유하고 있는 정부의 통일교육의 빈틈을 메우며, 진정한 민족의 화해와 평화, 자주와 통일을 지향하는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채워가고 있다.

교사들이 만드는 새로운 통일교육의 최대 성과는 현장의 교육 실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실 공간에서, 학교라는 테두리 속에서, 혹은 학교 밖에서 여러 가지 제약과 교수-학습 조건을 고려한 속에서 실제 경험을 통해 실험되고, 다듬어진 성과라는 점에서 다른 어떤 연구 성과나 학술적 논의보다도 현실 적합성을 갖고 있다.

이런 현실 적합성을 갖고 있는 새로운 통일교육의 사례들이 매년 수십 건씩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들중 상당한 사례가 전교조 통일위원회, 그리고 각급 교육청의 통일교육 자료에 실려 현장에 보급되면서²⁴⁾, 학교 현장의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으로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교사들이 만드는 새로운 통일교육의 최대 성과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사들이 새로운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창출하여 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첫째, 종합적인 통일교육 또는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내오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현장의 교사들은 한 개 학년 또는 한 개 과목을 담당하고 있으며, 자기 교과 수업을 하는 속에서 통일교육을 연구하고 실험해야 한다. 따라서 교사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통일교육 연구와 사례들은 작게는 한 시간의 수업 분량에 그치거나, 길게 보아도 한 학년의 1년치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종합적인 통일교육, 또는 평화교육 프로그램은 현직 교사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연구 과제로서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교사들의 새로운 통일교육 연구 실험이 이론적 학술적 기초가 부족한 채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교조 통일위원회나 지역 통일교사모임 모두 외부 연구자

24). 예컨대, 통일을 생각하는 서울교사모임이 만든 '차이와 차별을 주제로 한 통일교육' 등은 충북, 전남 교육청의 통일교육자료집에 실려 보급되었다.

나 외부 단체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통일교육에 대한 연구와 실천을 행하고 있다²⁵⁾. 때문에 통일교육 또는 평화교육의 이론적 학술적 연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며, 통일운동 단체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 당국이나 교육청 등의 지원을 받기도 어려운 구조 속에서 자립적으로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이런 한계에서 나오는 연구 성과들이기 때문에 현장성이 감함에도 교육철학적 기반이나 교육 방법론적 정교함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III. 체계적인 평화교육 대안을 만들기 위하여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교사들은 강한 현장성을 갖고 정부 주도의 기존 통일교육과 달리 민족의 화해와 평화, 자주 통일을 지향하는 새로운 통일교육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체계화된 않았지만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을 접목시켜 가는 과정에 있다.

현시점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새로운 통일교육을 추구하는 교사들의 연구와 현장 교육의 결과물들은 한국 사회에 적합한 통일교육, 평화교육의 상을 만들고, 이를 일반화하여 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통일교육을 추구하는 교사들이 주객관적으로 많은 한계를 안고 있지만, 교사들과 함께 이런 한계를 보완하고, 극복하며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새로운 교육을 창출하여 가는 일은 평화운동, 통일운동을 실천하는 사회단체와 사회운동가의 주요한 몫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에서 한국에서 평화교육이 체계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상생적 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5). 어깨동무의 평화교육팀 등 일부 모임은 외부 단체의 지원과 대학교수 등 연구진과의 결합으로 연구 실천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한국사회는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슬한 질곡과 고통을 받아왔기 때문에 '통일'과 '통일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매우 높다. 그러나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지금도 우리에게 주요 화두가 되고 있듯이 우리 역사는 늘 전쟁과 함께 해왔으면서도 '평화'와 '평화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은 편이다. 이는 냉전적 대결적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통일'과 '통일교육'의 문제를 이념적이고, 정책적이며, 정치적인 문제로 인식해온 결과일 것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한국사회에선 아직 평화교육보다 통일교육이 압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평화교육' 담론은 통일교육에 깊이 있게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 통일사회를 지향하는 새로운 통일교육은 평화교육과 접맥되어야 한다.

통일교육은 교육학적으로 통일교육이 교육철학적 기반을 갖는 교육사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평화교육과 접맥되어야 한다.

그간의 통일교육은 정치적, 정책적으로 연구되고 구성되고 연구되어 왔기 때문에 교육철학적 기반이 없다. 이것은 통일교육의 지향 가치가 불명료하고, 교육과정 구성에 대한 교육학적 연구가 빈약하고, 교육내용이 주로 정치적, 정책적인 것들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평화교육은 '나'의 삶과 '사회'의 삶, '인류'의 삶을 관통하는 삶의 철학에 기초한 교육철학적 기반을 갖고 있으며, 교육학적인 방법론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목적과 목표, 교육과정, 방법을 포괄하는 교육사상으로서 정립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통일교육은 평화교육과 접맥될 때, 정책교육, 정치교육을 벗어나 풍부하게 되고, 미래의 우리 교육을 이끄는 교육사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므로 통일교육의 발전에 관심을 갖는 우리들은 통일교육에 평화교육을 접맥시켜 통일교육을 풍부하게 하고, 통일교육의 교육철학적 기반을 구축하고, 교육학적 방법론을 정밀화하여 가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평화교육은 한국사회의 현실에 적합한 현실교육으로 자리잡아나가기 위해서 통일교육과 만나야 한다.

세계적으로 평화교육은 각 국가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하여 왔다.

그런데 한반도에서 '평화교육'이 지향하는 평화로운 삶은 한국 사회를 총체적으로 규정하는 분단과 그로 인한 냉전적인 대결의 문제를 떠나 생각할 수 없다. 때문에 한국에서의 평화교육은 분단과 통일의 문제를 도외시하고는 한국 사회에서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공허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서구적 경험에 바탕한 평화교육론을 직수입하여 통일과 분단의 문제를 평화교육의 주요한 문제로 다루지 않고, 평화교육을 생활상의 평화 문제나 인류 보편적 문제로만 취급하는 것은 한국 상황에 맞는 평화교육을 형성해가는 길이 될 수 없다. 분단과 통일의 문제가 압도적인 한국 사회에서 이런 평화교육이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보편성은 구체성 속에 자신을 드러낸다. 그런 점에서 평화교육의 보편성은 한국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한국적 평화교육에 녹아들어야 하며, 그 길은 평화교육이 통일교육을 만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통일문제과 평화교육이 접맥될 때, 통일교육은 현재의 분단상황 속에서 평화와 공존의 삶을 추구하는 사회문화를 만들며, 미래의 통일사회를 준비하며, 나아가 미래의 평화로운 세계를 지향해가는 한반도의 평화교육으로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며, 한국의 평화교육은 한반도의 평화적 삶을 파괴하는 분단 현실을 극복해가는 힘을 만드는 통일교육으로서 세계 평화교육의 새로운 모범을 창출해가는 방향으로 발전해 갈 것이다.

2. 한국 사회의 교육 현실에 부응하는 연구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접맥을 통해 새로운 통일교육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교사들이 부딪치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평화교육은 담론이 거창한데 현실적합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점과, 새로운 통일은 그 실천에 사회정치적 제약이 극심하다는 점이다.

우리의 교육현실은 담론의 평화교육을 실천하기에는 너무나 큰 한계를 갖고 있다. 지적 전수를 중심으로 수업할 수밖에 없는 학교 현실, 교과별로 교육내용이 세분화되어 있는 교과수업구조, 경쟁이 제도화되어 있는 교육 풍토, 연속적인 프로그램으로서 교육과정 재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학교 현실에서, '평화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는 능력'과 그 '꿈을 이루어보겠다'는 의지와 성실한 실천'을 가르치는²⁶⁾ 평화교육의 실천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그것이 연속적인 실천의 과정으로서 평화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이르면, 교육현장에서는 평화교육을 접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평화교육이 학교 현실에 접근하여 현실성 있는 교육으로 자리잡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현실에 부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 유력한 방안은,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평화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평화교육의 철학과 방법이 녹아있는 한 시간 짜리 평화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무수히 짜내어 학교 현장에서 다양하게 교육실천이 이루어지도록 제공하여, 그렇게 흩뿌려진 평화교육의 실천이 전체적으로 모아지면서, 평화교육의 큰 흐름으로 모아지도록 해나가는 것이 아닐까 싶다. 중요한 것은 평화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현장에서 실천되고 실험될 수 있도록 구체성을 띄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접맥도, 평화교육의 현실적 발전도 관념적인 것으로 그치기 쉽다.

새로운 통일교육의 실천에 대한 사회정치적 제약은 2003년 반전평화교육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우리 교사들이 평화의 가치 교육을 하게 되자 언론에서 바로 교육의 가치 중립성 문제를 제기했다. 시민사회에서는 반전과 평화가 보편적인 가치로서 인정되어 사회적 반전평화운동이 큰 제약을 받지 않았지만 학교 현장에서 반전평화교육은 위협스러운 일로 인식되며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었다. 학교 현장에서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은 다같이 '국익'이라는 이름 아래 국가가 허락하는 이상을 넘는 어떤 것도 불순함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런 현실이 학교 교실수업의 한계 못지않게 중요한 우리 교육의 현실적인 모습이다.

26). 고병현

평화교육이나 통일교육 모두 이런 제약을 뛰어넘으려는 노력 없이는 영향력 있는 학교 교육의 내용과 방법으로 자리잡아갈 수 없다.

이것은 평화교육의 정착이 교육자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음을 말해준다. 평화는 근본적으로 전쟁과 폭력을 발생시키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심리적인 갈등과 대립, 증오, 편견을 극복하고 상호이해와 존중, 관용과 비폭력적 해결을 지향하는 근본적인 '평화문화'를 창출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회의 평화문화의 수준이 낮을 때 교실에서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수업은 사회정치적 제약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교실에서의 평화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담보할 수 없게 한다.

평화교육은 지식이나 정보 전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참여하고 실천하는 평화능력의 향상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데, 평화능력은 단지 개인적인 '인품'의 문제가 아니라,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 능력'으로서, 가치와 태도의 내면화를 위한 교육훈련과 이를 사회적인 평화의 문화가 뒷받침할 때 효과적으로 증진될 수 있다. 사회와 교실을 넘나드는 학생들에게 사회의 평화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을 때 교실의 평화수업이 교육적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²⁷⁾.

이런 점에서 평화교육, 통일교육은 평화 증진을 위한 정치적, 사회적, 제도적 개선을 위한 노력 즉 평화운동과 함께 나가야 하며, 함께 결합되어 전개되어야 한다.

3. 교사, 전문연구자, 사회단체의 협동이 필요하다.

앞서 말했듯이 학교 현장(초중고)에서 교사들의 평화교육의 실천과 평화교육 전문연구자들의 결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한 평화운동 사회단체와 위 양

27). 학교의 가치관 교육이 거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있듯이 가치관과 삶의 태도에서 학생들은 학교 수업보다는 사회적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다. 더구나 통일교육 측면에서보면 심지어 학생들이 얻는 정보조차도 학교 수업보다는 언론과 사회로부터 얻는가 절대적으로 앞선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교육, 통일교육을 사회문화와 분리하여 교육적으로만 해결하려 드는 것은 관념일 수밖에 없다.

자의 결합도 원활하지 않다.

그러나, 평화교육의 체계화와 현실화를 위해서는 3자의 결합이 끊임없이 추동되어야 한다. 그래야 평화교육은 현실성을 갖게 되고, 현장의 교사들의 평화교육 실천은 철학적, 교육학적 뒷받침을 갖는 효과적 교육실천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평화운동 또한 평화교육을 주요한 운동의 힘으로 가져나가 힘있는 운동으로 발전하여 우리 사회의 평화 문화를 만들어가는 위력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통일운동과 평화운동이 하나로 결합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합의 일환으로서 지역사회운동체는 주민들에 대한 평화교육을 위한 시도를 끊임없이 전개하고 경험을 축적해나갈 필요가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평화교육은 민간 영역의 지역 평화운동단체 혹은 학부모집단들에 의해 다양하게 시도되다가 점차 정부의 정규 교육프로그램으로 수용되어온 경험들이 많다. 이들 나라에서 지역사회와 평화운동의 그룹이 갈등의 평화적 해결과 훈련, 교육으로의 확대에 대한 지속적 노력이 없었다면, 평화교육의 정착은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분쟁과 갈등지역의 평화교육은 학교교육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 교회, 청년, 학생, 여성, 장년, 노인 층 모두가 참여하는 계속 교육이며, 평생동안에 걸쳐서 갈등의 평화적이고 건설적이며 창조적 해결을 훈련하고 습득함으로써 평화로운 사회와 공동체건설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생학습의 성격을 띠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거의 시도되고 있지 않은 이러한 노력들이 다양하게 전개될 때, 평화교육은 학교 교육을 넘어 한국 사회의 분단과 폭력적 문화를 해결해가는 사회적 힘으로 튼튼하게 성장할 것이다.

4. 평화교육 방법론의 구체화를 위한 집중적인 연구노력이 필요하다.

교육의 방법의 문제는 교사들의 철학이나 자세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접근의 문제이다. 그런데 한국의 교육은 주지적인 교육에 익숙해져 있어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교육방법에 대한 실천적 연구가 매우 빈약하다. 특히 가치관, 태도, 문제해결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의 측면에서는

더욱더 그러하다.

평화교육은 평화적 삶의 가치를 수용하고 내면화하여 평화능력을 기르는 데 역점을 두는 교육으로서 그 특성상 과정 중심의 교육방법이 우선될 수밖에 없는 교육이다. 따라서 교육방법의 발전 없이는 평화교육의 발전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화교육의 교육적 목표 평화능력은 단 시간에 학습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인지적 전달이 아니라 전인적인 '경험' 속에서, 실제의 가정생활과 학교, 이웃 생활을 통하여 스스로 체험하고, 여러 경험의 공유를 통하여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 내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화교육의 방법은 학교, 교사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방법론에서 탈피하여 방법론을 다원화하는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평화교육 방법론의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평화적 감수성을 일깨우는 방법론을 많이 연구개발해야 한다.

평화교육의 방법에서는 끊임없이 평화적 감수성과 민감성의 훈련을 요구하고 있다²⁸⁾.

일상에 스며든 반평화와 폭력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면 감수성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감수성훈련은 자칫 무감각, 무관심해지기 쉬운 반평화, 일상의 폭력의 문제를 끊임없이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임으로써 평화의식을 일깨워 정치적, 책임적 인식과 행동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감수성 훈련은 결국 폭력의 일상성 속에서 인권이 유린되고 폭력이 더 강건하게 재생산되는 반평화의 현실에 대한 자각을 목표로 한다. 지금까지 반평화와 폭력의 희생자가 다름 아닌 '나' 자신이 아니라, 언제나 '타인'일 것이라 생각해왔기 때문에 현실의 반평화와 폭력은 남의 일이며, 그래서 옆 사람의 고통마저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 무감수성, 무사고, 무사려를 키워왔다. 결국 자신의 평화의 권리나 인

28). 최근의 평화교육의 흐름에서 차이와 다름의 수용을 통한 공존과 공생의 가치를 수용하는 감수성 훈련의 경험들이 조금씩 축적되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평화운동, 평화교육을 추구하며 우리는 '공존'과 '공생'이란 말을 즐겨 써왔지만, '차이'와 '다름'을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공존하고 어떻게 공생할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가서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전히 동질성의 회복을 강조하며, 우리 안에 '다양성'(diversity)과 '다원성'(plurality)에 대한 인식을 내면화시키지 못하고, 구획과 분리를 통하여 서로 다름을 확인하는 행동들을 무의식적으로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권을 지키고,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밝혀가기 위해서는 평화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자각하는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평화교육의 방법론 발전을 위해서는 참여학습 방법이 꾸준히 개발되고 경험이 축적되어야 한다.

평화교육의 목표는 지식전달이 아니라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가치와 태도를 훈련하고 습득하는 것이라 하겠는데, 이는 학습자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자신을 개방하고 감수성을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평화교육은 학습자들의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수업을 조직함으로써 그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학습자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수업 방법론들이 많이 연구되고 보급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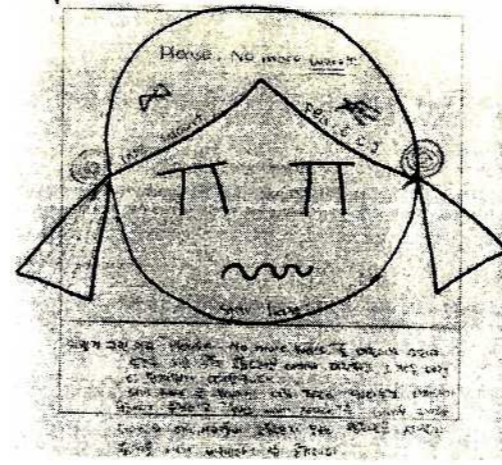
참고자료 : 평화수업 방법론(참여학습)의 예

- 정용민(서울, 역삼중학교) 제공



개인적으로 지난 3월을 맞이하면서 수업공간을 통하여 반전 평화수업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시하였었다. 특히 전교조 통일위원회의 조직사업으로 추진되던 반전평화의 버튼(배지, 달개) 달기가 관촌중학교의 신선한 충격이 계기가 되어 급속도로 진전되었고, 얼마 후에는 전국적인 배포망을 갖는 반전평화 달개사업과 평화선언을 조직하는 일들이 전개되었다.

수업활동은 반전배지의 도안을 함께 만들어보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중학생 1학년 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인터넷을 통하여 세상 읽기가 가능해진 시대를 확인이라도 하듯이 학생들의 작품은 수준작이 많았고, "still hope" 처럼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여유로운 미래전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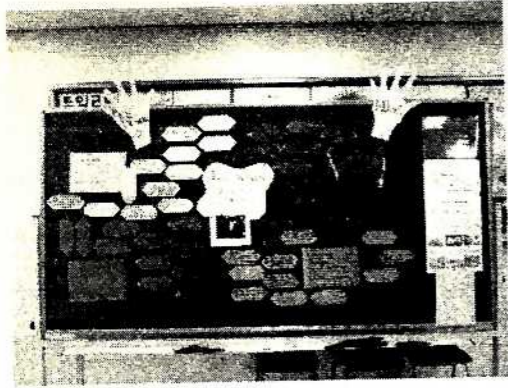


20일 서울 역삼중과 전북 관촌중학교 학생들은 도덕과목과 재량학습시간에 전쟁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담은 그림 그리기, 글짓기, 토론을 통해 전쟁의 위험성에 대해 공부했다.

두 학교는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도안을 작성해 배지(그림)를 제작하고, 배지 달고 다니기 운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종두(?) 역삼중 교사는 "남의 나라 전쟁이라 다소 무심했던 학생들도 그림과 글쓰기를 하면서 전쟁의 공포를 실감하는 듯했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2003.3.20)

전쟁이 임박하자 샬롯 엘더브론(Charlotte Aldebron)의 편지를 활용하여 (13세, 미국 커닝햄 중학교 학생- What About the Iraqi Children?) 어린이의 입장에서 전쟁을 바라보는 연습을 마인드 맵을 공통으로 작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개인 학습지보다는 게시판을 이용하여 전체가 함께 만들고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부딪히게 함으로써 수업과정이 더욱 활발해지고 생각들도 진지하게 이루어졌다.

전쟁의 고통과 피해 (For Whom ?)



1. 이라크의 어린이는 _____ 이라서, _____ 것이다.

◆ 이라크의 어린이가 '나' 라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떤 일이 가장 힘들었을까요 ?

◆ 지금 전쟁 중에는 가장 무섭고, 힘들 일이 무엇일까요 ?

◆ 전쟁이 끝나면 무엇이 가장 먼저 걱정스러울까요 ?

이라크 어린이들도 나처럼 꿈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지금 내 나이, 나보다 더 어린아이들도 '나중에 커서 ~가 돼야지.' 또는 '어떤 사람이 될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다. 전쟁 때문에 자신이 희망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을 겪거나 생명을 잃은 아이들도 많을 것이다. 그런 아이들을 생각하며 전쟁을 끝냈으면 한다. 그게 나와 이라크 어린이들의 "소망"일 것이다. (중 1 이희연)

지금 내가 있는 곳에 폭탄이 떨어지는 것과 식량이 없어 배고픈 것이 가장 힘들 것 같다. 전쟁이 끝나면 내가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았을까, 폐허가 된 곳에서 어떻게 살지가 가장 걱정될 것 같다. (중1 박동준)

2. 샬롯이 내 친구라면.?

◆ 샬롯에게 힘이 되어주는 편지나 카드, 메시지를 쓴다면 ?

◆ 이라크 어린이에게 보내는 나의 작은 기도(속삭임)

샬롯에게...
샬롯.. 네 이야기를 듣고 보니 많은 점에서 동감이 되구나. 나는 그 동안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전쟁에는 관심조차 없었는데....이번 미국과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이라크 어린이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 전쟁으로 인해 이라크 어린이들은 전쟁 이후까지 큰 고통을 겪는다고 해...또 많은 피해가 발생되는데 특히 약이 없어 병든 어린이들은 치료 한 번 못해 본다니... 그 동안의 나의 생각과 무관심에 반성이 되구나.. ㅠㅠ!!

샬롯!! 넌 참 어른스럽구나..나도 너의 뜻에 공감하고,,항상 문제가 생기면 '나'라는 단어와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해야겠구나. 나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맙구나.. 앞으로 나도 전쟁을 반대하게 되었어..죄 없는 나와 같은 어린이들이 평화가 있는 그 날까지...샬롯! 앞으로도 너의 뜻을 본받아서 잘 살게...(중 1 정유현)

To. 샬롯
샬롯, 안녕? 난 한국에 사는 윤영이라고 해. 난 이라크 전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거든. 그런데 너의 글을 보고 다시 한번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느꼈지.

다섯 살 자리 아셈에게 전쟁이 무엇이나 물었을 때 아셈의 대답은 참 놀라웠어, 다섯 살 자리가 전쟁을 그렇게 표현할 줄은 몰랐어, 그냥 싸우는 것이라 대답할 줄 알았어.

1991년, 내가 한 살 때의 일이구나. 대피소에 미국이 폭탄을 쏘서 죽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미국은 잔인한 나라라고 느꼈어, 용기 잃지마! 너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군인 때문에 우리 나라 중학생 두 명이 죽어서 미국에 대한 감정이 아주 나빠. 전쟁은 군인과 군인끼리 싸우는 거라 생각해. 그런데 왜 민간인까지 피해를 봐야되는 거지? 이라크 어린이는 연필도 사용하지 못한다던데 사실이니? 빨리 너희 이라크에 물자 지원이 되어서 너희들이 걸린 병도 치료하고 공부도 연필로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도 언젠가 그런 날을 맞이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길 바라며 그럼 이만, 안녕! (중 1 최윤영)

3. 이번 이라크 전으로 겪게 되는 고통과 피해는?

- ◆ 이라크 인들이 겪게 되는 고통과 피해는?
- ◆ 전쟁의 당사자(군인과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들)의 피해는?
- ◆ 이라크 전쟁으로 우리 나라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은?

이번 이라크 전을 통해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은 민간인. 그 중에서도 여자와 어린이들이다. 미국이 아무리 GPS를 이용한 폭탄을 사용한다하여도 빗나가 민간인들이 사는 지역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이라크 전을 우리 나라는 지지하였으므로 아랍국가들에서는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가 수출하는 물건들도 잘 안 팔릴 것이다. 이번 전쟁이 우리 나라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준다.(중1 마지막)

이라크 아이들은 전쟁이 발생했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 형제가 죽어가는 것, 또 자신이 다치는 것을 보고 느끼면서 외상뿐만 아니라 마음의 깊은 상처와 슬픔을 느끼게 된다. 또한 전쟁 후에도 전쟁에서 느꼈던 상처와 외상으로 살아가는데 큰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자신이 그 아이라고 느껴보자. 자신이 보고 있는 앞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 형제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데 자신은 아무 힘도 안되고....전쟁은 있어서도, 해서도 안되는 것이다. (중1 이동엽)

사담 후세인 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민간인이 고통받고 있다. 무수히 많은 폭탄이 떨어지는 가운데 두려움에 떨며 지내고 있다. 또 후세인에게 인간방패가 될지도 모른다. 또한 전쟁 후에 고통도 걱정스럽다. 아픈 사람은 많지만 약품은 부족하다. 또한 방사능 오염도 두렵다. 제발 부시가 전쟁을 중단하고 후세인, 빈라덴은 투항했으면 좋겠다. (중1 조건희)

4. 이라크의 어린이가 평화롭게 살아가려면 무엇부터 해야하는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 전쟁이 끝나면 무엇부터 해야하는가? (국제적인 도움)
- ◆ 지금 전쟁은 계속되어야 하는가?
- ◆ 나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전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만약 전쟁이 계속되지 않고 중간에 멈춘다면 어차피 또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그 이유는 미국은 이라크에 대해 나쁜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쟁의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중1 김주현)

전쟁을 막으려면?

- ⇒ 전쟁의 피해, 결과, 좋지 않은 점을 뇌리에 박히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 전쟁(폭력)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은?
- ⇒ 평화의 방법,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 (중1 배진영)

평화심성의 사회화와 평화문화 형성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1. 평화심성과 평화문화: 어디에서부터?

본래 계획한 글의 제목은 '내면의 폭력성과 평화문화'였다. 그러나 미래를 위한 대안적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한 구성요소로서의 평화심성 혹은 내면의 평화(inner peace)를 다룸으로써 보다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싶은 바람으로 제목을 변경하였다. 우리들의 비평화적 심성이나 폭력성에 대한 많은 분석들에 대한 소개나 정리 차원을 넘어서서 어떻게 평화로운 마음과 심성, 감수성이 사회적이고 구조화된 정의로운 평화와 이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평화문화로 전환하게 하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비중을 더 두고자 함이다.

평화심성, 내면의 평화, 평화감수성, 그리고 평화문화는 평화연구나 평화운동, 평화교육 영역에서 아직까지 가장 덜 다루어진 부분이다. 그러나 이 주제들은 오랜 분단사회의 누적된 피로감과 보이지 않는 대상에 대한 적대감의 유지, 심화되는 경제적 불안과 극단화된 경쟁사회 속에서 지친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기대감을 갖게 한다. '평화여성회'에서 두 번 시도한 "평화심성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수강료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어떤 평화교육 프로그램보다 더욱 관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시민단체 활동가에서 평화운동가, 교수, 주부, 작가 등 다양하

였고 대개는 평화운동에 이미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 마음의 평화를 찾을 것인가,' '평화심성이란 어떤 것이고 어떻게?' 라는 질문을 안고 참여한 것이다.

평화심성이나 내면의 평화라는 주제는 평화활동가들에게도 역시 중요한 주제이다. 우스갯말로 "평화단체에 평화가 없다"라는 말이 나온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군축, 동북아 평화, 남북관계, 비핵지대화, 군사주의문화, 양심적 병역거부, 반전운동 등등 커다란 주제를 안고 행사와 교육, 연대, 회원과의 만남 등등 시간과 재정에 쫓기는 활동을 계속하다 보면 '나의 평화'는 물론 '나'라는 존재도 점차 소진되어 간다. 어떻게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즐겁게 평화운동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거리에서의 시위를 좀 더 평화로운 모습으로 꾸며낼 수 있을까? 사람들이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들의 거리행사를 보면서 '참 평화로운 모습이다. 아름답다. 감동적이다. 나도 참여하고 싶다'라고 기꺼이 동참할 수 있게 할까? 어떻게 평화운동을 하는 우리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또 기운을 받고 그럼으로써 성장되어 갈 수 있을까? 내가 성장하고 단체도 커 나가고 또 바라마지 않는 평화로운 사회도 이룩하고. . . .

한편 평화심성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내면의 평화를 어떻게 관계의 평화, 사회적 평화, 구조적 평화로 전환시킬 것인가. 어떻게 내 안에 있는 평화의 능력을 사회적 평화의 힘으로 전환시킬 것인가. 그것을 가능케 하는 동력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안고 있다. 아마도 이것은 심성프로그램(가치, 태도, 인식의 형성)과 기술훈련(갈등해결: 대화, 의사소통기법, 중재, 협상, 협동)과 지식(군축, 남북관계, 군사주의, 반전, 반핵, 비폭력 등등)을 통합시킬 때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 평화문화이다.

한편, 평화문화 프로그램은 아직도 상대적으로 빈곤하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과 '평화여성회'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전개한 무기장난감 바꾸어주기나 '평화문화캠페인'(3적게 3많이 "적게 먹고, 적게 쓰고, 적게 화내고, 많이 웃고, 많이 듣고, 많이 참여하자"), 평화축제(안티미스코리아) 등등 그 내용이 손에 꼽을 정도이고 지속적 과정이라기 이벤트 성격이 강하다.

유네스코와 유엔에서는 지난 2000년을 "평화문화의 해"로 선언하고,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이 기초한 "평화의 선언"(부록자료1 참조)에의 1억이 넘는 세계인의 서명, 그리고 2001-10년까지의 "세계의 어린이를 위한 평화문화와 비폭력 10년" 선포와

평화문화와 교육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여기서 선포된 33개의 아젠다 가운데 평화문화를 위한 행동프로그램으로 추진한 8가지의 행동영역은 교육을 통한 평화문화, 지속가능한 경제적 사회적 발전, 모든 인권의 존중, 양성 평등, 민주적 참여와 이해 관용 연대, 참여적 의사소통, 정보와 지식의 자유로운 유통, 국제적 평화안보 등으로 이들 개별영역들이 '평화와 비폭력 문화 속에서 통합적이고 상보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¹⁾

그런데, 유네스코나 유엔에서 주관하는 '관용의 해', '물의 해' 등등이 대개 그렇듯이 이것도 위에서부터 아래로(top down) 전달되는 선언적 프로그램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 세계적 차원의 선언이나 운동은 대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기 마련이어서 이를 구체적인 내용으로 채우고 실천시켜나아가야 하는 것(ground up)은 지역단위의 정부, 시민사회단체나 교육기관의 몫이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의 폭력성과 비평화를 극복하여 일상의 평화를 만들어 가고 정의로운 평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평화문화를 구성하는 그 내용들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또 이를 일상에서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이를 위해 나는 어떤 평화의 가치와 태도, 그리고 의식, 생활양식을 가질 것인가 등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2. 두 이야기를 통해 평화심성과 평화문화에 접근하기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이 주제에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자

▲ 첫 번째 이야기: 새만금과 부안의 아주머니들

새만금을 살리기 위한 삼보일배 수행이 끝난 후 필자와 가까운 가톨릭 수녀님이 지난 6월 말부터 7월초순까지 삼보일배의 정신을 잇기 위해 '여성종교인건기'에 참여하면서 겪은 이야기이다. 명동성당에서 출발하여 무더위와 땀, 장맛비로 고생을 했지만 경기도, 충청도를 지날 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전북지역으로 진

1) 강순원,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사회문화적 재구성", 『21세기 평화학』, 하영선 편, 풀빛, 2003.

입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새만금 추진위원회' 측에서 동원한 사람들(장년남성들과 아주머니들)의 욕설과 폭력의 위협이 이들 여성종교인들(수녀님, 스님, 교무님, 목사님)들에게 생명의 공포는 물론 독신여성으로서의 약자됨을 절감하게 했다. 이들의 위협과 욕설, 폭력의 강도는 계속되었다. 경찰에서 이들을 보호해 주기는 했지만 거친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비닐봉지에 새우젓을 담아서 던지는 이른바 '새우젓탄'이 등장하여 피해자들을 무더운 여름 너무 고통스럽게 하였다고 한다. 어쨌든 경찰의 보호와 여러 동행자들의 염려와 배려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톨릭환경사목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수녀님이 부안해폐기물처리장 유치반대 시민촛불시위에 참석하게 되었다. 이곳에서 낯익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바로 얼마 전 새만금 건기에 방해하러 일당을 받고 동원되어 나왔던 그 아주머니들이 촛불시위에 해폐기물처리장 반대의 목소리를 올리고자 참석한 것이었다. 이들의 목소리 또한 여느 반대시위 참여자와 다를 바 없었다.

수녀님은 처음에는 너무나 놀랐지만 어떻게 동일인물들이 지역문제에 대해서 다르게 행동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분들의 사고와 행동의 범위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데서 다른 행동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라는 점이다. 새만금과 연결된 부안지역에서 생활근거지를 갖고 사는 이들에게 부안 해폐기물처리장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와 결부되어 이 시설이 들어서면 인근 바다가 오염되고 관광이며 모든 것이 끝장난다는 깨달음이 이들을 촛불시위장에 자발적으로 참석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새만금은 전북시민들에게 개발에 대한 이데올로기와 신화가 되었다. 따라서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적'이 되는 것이다. 이들이 여성이든 종교인이든, 성직자이든 적대적 관계에 놓이면 이웃이나 동료로 간주될 수 없다. 이른바 비인간화(dehumanizing)와 악마화(demonizing)가 손쉽게 이루어진다. 거기다 '새만금 추진위원회'는 이들을 고용하면서 욕을 잘하는 사람, 힘을 잘 쓰는 사람, 그냥 들러리로 서면서 함께 소리 지르는 사람 등으로 나눠 일당을 차별적으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면 자신들의 폭력성을 더 발휘해야 했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종교인들에게 성적, 인격적 모멸감과 생명의 위협과 공포감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수녀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독신여성 성직자(the sacred)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데서 이들이 은근히 느끼는 쾌감을 전달받았다고 한다.

이들의 행동은 유별난 사람들, 폭력성이 더 강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자기나 가족중심주의나 이기주의, 완곡하게 말한다면 자신의 이해나 이익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사회적 문제에 노출된 평범한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다. 다만 이렇게 저렇게 세상의 풍파를 겪어온 세대의 배짱이나 배포가 더 보태졌다고나 할까? 자신의 이해관계 범위를 벗어난 것에 대한 무관심과 무감각은 보통 평범한 사람들을 별로 어렵지 않게 폭력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들은 아마도 그날 받은 일당으로 사우나에 가서 땀에 젖은 몸을 씻어내고 회포를 풀었는지 모른다. 사람들의 이러한 무관심과 무감각을 극복하게 하는 일은 평화의 의식화와 평화행위 능력의 배양을 강조하는 평화교육의 핵심²⁾이다. 한편 이는 평화문화형성을 구성하는 평화심성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이다.

▲ 두 번째 이야기: 민다나오의 평화교육, 평화문화, 평화지역 운동

지난 6월 민다나오의 다바오에서 열린 민다나오평화프로그램(Mindanao Peace-building Institute)에 다녀왔다. 3주간의 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 각국과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의 여러 평화활동가, 지역조직가(CO)들을 만날 수 있었다. 오랜 갈등과 분쟁의 역사를 갖고 있는, 특히 지난 1972년 마르코스의 계엄령이 선포된 이래 지금까지 3년에 한번 꼴로 정부군과 반군사이의 전투가 발생한다는, 그래서 지난 5월의 자카르타평화회의에서 영구전쟁지역(Eternal War Zone)으로 분류된 그런 비극적인 곳에서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슬람, 가톨릭, 원주민(Lumads) 등 다양한 인종적,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특별히 이슬람지역을 기반으로 평화교육을 전개하는 가톨릭 활동가들이 인상적이었다. 이들에게서 중부민다나오지역--지난 2000년 전 에스트라다 대통령이 MILF(모로이슬람해방전선)에 대해 전면전(all out war)을 선포한 곳, 올해도 2월 달 양측의 전투개시로 30만의 피난민이 발생하였다--에서 전개되고 있는 '평화지역'(Zone of Peace), 평화공간(Space for Peace), 평화성소(Sanctuary of Peace)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은 신선함을 넘어선 충격이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세 번째 주의 현장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

2) 이삼열, "평화교육의 철학과 과제," 아시아종교인 평화회의 서울평화교육센터, 『종교간 대화와 인류평화』, 1992, 14쪽, 조민, 『한국사회의 평화문화 형성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2000, 119쪽에서 재인용.

할 수 있었다.

중부민다나오의 중심도시 가운데 하나인 코토바토시(이슬람자치지역 가운데 하나)에 위치한 노틀담대학(NDU)의 평화센터를 방문했는데 필리핀에서 유일하게 평화학 박사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곳으로, 단순히 학문적 활동을 넘어서 지역의 세 종교 종교지도자와 종교교사모임의 주선, 지역정부, 군당국, 사업가와의 평화를 위한 대화모임 조직, 지역 내 초등, 중고등학교의 평화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제공과 교사 훈련 등등 지역평화운동, 평화교육의 정보와 인적교류의 중심지였다. 이 도시의 가난한 지역에 자리 잡은 두 군데의 어린이평화교육센터(Child Peace Learning Center)를 방문했는데 4-6세의 이슬람, 가톨릭 어린이에게 평화교육커리큘럼과 매뉴얼을 통해서 생활 속의 평화문화를 교육을 통해 전달하고 있는 곳이었다. 평화를 여는 아침인사에서부터 '평화테이블'(peace table: 아이들이 싸우면 이 탁자에 가서 화해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곳, 스스로 가기도 하고 친구들이 그리로 인도하기도 한다), 경쟁을 유발하는 컨테스트를 배치하지 않는 프로그램, 학부모와의 평화대화 등 다양한 내용을 통해 아이들은 평화를 몸으로 훈련하고 언어로 표현할 수 있으며, 종종 부모들에게 평화로운 갈등해결을 조언하기도 한다.

다음날 난민촌이 밀집되어 있는 피키티지역(이슬람 지역)에서 '평화지역'을 선포한 바랑가이(촌락)의 하나인 파니쿠파를 방문하였다. 가난한 지역의 가난한 학교 교실은 마을주민들의 모임공간이기도 하였다. 이곳에서 촌장, 교사, 종교지도자, 마을 주민 등등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방문한 사람이나 우리를 맞아들이는 마을주민들 모두 서로에게 호기심을 갖고 질문하고 답변하였다. 이슬람과 가톨릭이 모여 사는 이 마을 사람들은 정부군이 MILF를 대상으로 전투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평화롭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던 곳이다. 이후 크고 작은 전투로 인한 인명희생과 재산 상실과 더불어 종교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외부세력에 의해 이들은 서로에 대해 적대감과 편견, 선입견, 두려움을 확대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역조직가와 평화활동가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양쪽 그룹의 지도자들이 공존을 위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고 마침내 자신들이 사는 촌락을 평화의 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 평화지역이란 엘리제 보울딩이 말한 대로 자신의 지역에 무력이 행사될 수 없도록 하는 비핵지대화, 비무장지대운동의 일환이다.³⁾

3) "특정 지역에서 무기를 제거하는 평화지대 전략은 평화연구의 발전이 평화운동에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이다. 평화지대협정은 비핵무기 지역에서 완전한 비무장지역, 그리

중부민다나오에서는 이러한 평화지역 선포가 계속됨으로써 정부군과 MILF 사이의 전투가능 공간을 축소시켜나가고 있다.⁴⁾ 최소한 자신의 마을에서만이라도 전투나 공격적 행위를 중단시키는 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이다. 정부군과 반군지도자들에게 이를 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대감과 편견에 가득한 이슬람, 가톨릭, 원주민 사이의 내부적 평화동의를 먼저 수행되어야 한다. 어렵사리 양쪽의 대화를 성사시키면(양쪽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설득하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까지 걸리기도 한다), 서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 비난, 억울함의 성토, 상호 이해, 공감대형성 등이 이루어진다. 차츰 거리감을 좁히면 이슬람의 종교축일(모하메드가 메디나로 피난한 날)이나 가톨릭의 성탄절 등에 초청하는 등서로의 전통과 가르침을 나누고 배우며 공존의 의미(다름의 인정과 존중)를 실천하게 된다.

일련의 종교/신앙간 대화(interreligious/interfaith dialogue)와 함께 병행하는 것이 '평화문화 워크숍'이라 불리는 평화교육이다.⁵⁾ 지난 2000년 에스트라다에 의해 선포된 '전면전' 이후 평화문화 워크숍은 민다나오에서 지역단위의 차원에서 확산, 정착되어가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① 민다나오의 역사교육(기본적으로 민다나오의 갈등이 내부적 원인이 아닌 외부적인 힘에 의한 것임을 전달하는 목적을 가진다), ② 평화로운 갈등전환을 위한 기술훈련(대화, 중재, 협상 평화적 갈등해결과 갈등전환), ③ 평화문화를 위하여(자기성찰, 공동체운동의 이해, 문화적 개인적 전환, 치유와 화해, 미래의 비전과 전망 등)

종교간/신앙간 대화와 평화문화/교육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이 더 이상 외부세력에

도 양자 사이의 다양한 형태를 포함한다. 트라텔로 조약, 라라통가 조약과 필리핀의 새로운 평화지대 운동은 평화연구운동과 지역적 평화운동의 연합을 통해 가능했다. 더 많은 평화지대 계획이 입안단계에 있으며 연관 지역에서의 연합활동을 기다리고 있다." 엘리제 보울딩, "평화운동의 조직 형태: 평화문화의 모태", 하영선 편, 『21세기 평화학』, 풀빛, 2003, 357쪽.

4) *MINDANAO on the Mend*, ed. by Fr. Eliseo R. Mercado, Jr. OMI & Margie Morgan Floirendo, Photo. by Ryan Anson, The Southern Philippines Foundation for the Arts, Culture, and Ecology, Manila, Davao, 2003.

5) *Panagtagbo sa Kalinaw: A Basic Orientation Manual toward a Culture of Peace for Mindanao Communities*, CRS(Catholic Relief Service Philippines), OPAPP(the Office of the Presidential Adviser on the Peace Process), unicef(UN Children's Fund), MinCarrd, Kalinaw Mindanaw, 1998.

의해 주어진 갈등과 분쟁을 통해 편견, 적대감, 불안, 비평화를 지속시키는 것을 거부하자는 데 동의가 이루어지면 평화지역 선포를 위한 법적인 절차로서 정부군, 반군, 지방정부, 마을대표 등 4자의 서명이 이루어지면서 이 마을에서 더 이상 어떤 무력활동도 벌이지 못하게 된다. 마을 주민들이 외부의 무력활동을 거부하고 자기 마을의 평화를 보장받아 지켜낸 것이다. 이후 주민들 사이에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 역시 대화와 중재 등 비폭력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자각' 과 인내, 기다림의 중요성

민다나오에서의 3주간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가장 많이 접한 단어는 '자각'(Self Awareness)라는 것이다. 오랜 식민지와 군사독재, 다국적기업에 의한 착취와 박탈의 현실에서 빈곤으로 말미암아 생존의 한계선으로 내몰리고 있는 민중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처한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현실을 깨닫게 하는 일을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지배질서와 권위주의의 순응과 복종을 기조로 했던 식민지적 종교(가톨릭)의 가르침이 내면화되면서 억압과 침묵의 문화가 편재한 상황을 깨닫고 이제는 "No!"라고 말할 수 있게, 그 거부의 언어를 비폭력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이끄는 것이 바로 평화문화 워크숍의 역사교육과 평화적 갈등해결훈련 가장 큰 목표 가운데 하나이다. 이를 통해 현재의 분쟁과 갈등은 자신들에 의해서 혹은 자신들의 종교적 차이나 내부적 원인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체계적으로 강제된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만난 평화교육자, 활동가, 지역조직가들이 자신이 할 일이 무척 오래 걸릴 것이라 말하는 것이다. 자신들은 단지 씨를 뿌리는 역할을 한다고 그 결실은 아마도 7세대 이후에나 볼 수나 있을 것이라나....

평화교육과 평화문화운동은 스스로의 현실에 대한 깨달음, 즉 자각으로부터 시작한다. 그것은 위로부터 주어진 어떤 기획(project)이나 행사(event)에 의해서 정착되지 않는다. 민중들 보통사람들의 자각, 자기 내면을 바라보는 정직하고 바른 시선과 시각의 확립, 자기성찰의 능력 형성으로부터 출발한다. 또한 그것은 지속적 현

신을 요청한다. 인내와 미래에 대한 비전을 요구하는 대목이다. 필리핀의 평화교육자들이나 지역조직가들이 약 200-300년 이후의 미래를 생각하며 평화문화의 씨를 뿌리는 것은 자신들이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7세대 이후의 미래 후손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한다는 아메리카원주민들의 지혜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기실 문화라는 것이 인간집단의 사회화와 조건화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형성되는 가치, 태도, 의식, 행동 이것이 외화된 형태로서의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문학, 영화, 음악, 무용, 건축, 미술, 학문, 정치와 경제활동, 소비생활 등등이라 본다면 오랜 세월의 비평화와 폭력현실 속에서 내면화된 폭력성을 걷어내고 비폭력과 평화의 심성, 태도, 가치, 의식, 행위로 전환시키는 재사회화와 재조건화 과정 역시 오랜 시간을 요구할 것이다. 한국사회의 비평화의 요소들(오랜 폭력적 군사문화, 뼈 속 깊이 내면화된 반공주의와 자기검열기제, 사람들을 도구화하고 수단적으로 생각하는 실용주의적 사고, 중심과 주변의 이분법적 사고 속의 주류자적 정체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 물질과 소비만능주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주변화 등등) 역시 이를 극복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4. 평화문화는 토착적 지혜를 요구한다.

한편 평화문화는 외부적으로 이식된 것이라기 내적으로 키워나가는 그 무엇이다. 한 지역의 전통과 관습, 지혜, 학문적 실천적 경험이 축적되어 평화를 만들어 가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 민다나오 사람들은 역사교육과 비폭력적 갈등해결 교육, 자기성찰, 치유와 화해, 미래의 전망이라는 패러다임을 통해 자기 땅의 평화를 구조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문화적 훈련을 쌓고 있는 중이다. 이는 요한 갈통이 제시하는 '진단-예측-처방'의 평화패러다임에서 외부로부터의 개입이 처방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맥락과 같이 한다.⁶⁾

6) 갈통은 건강과 평화를 유비시키면서 자신의 패러다임을 전개한다. "외부로부터의 개입이 처방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첫째, 외부의 개입이 체계를 궁극적으로 악화시킬 수 있고 둘째, 자기 스스로도 적절한 처방을 제공할 수 있으며 셋째, 자

한국에서는 주로 유네스코 산하기구인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을 통해서 평화 문화교육이 전개되고 있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은 아직은 그 개념적 소개 차원이다.⁷⁾

개인의 연구로는 통일연구원의 조민 박사가 연구보고한 『한국사회 평화문화 형성 방안연구』(2000년)이 있다. 그는 평화문화를 평화연구, 평화정책, 평화운동을 포괄하는 것으로 보아 이론적 정책적 실천적 부문을 망라하는 긴장을 한 가운데 있는 것으로 보았다.⁸⁾ 그 문제의식의 출발은 한반도의 분단현실이며 남북한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평화환경조성으로서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평화마인드 확산의 요청, 우리사회의 대결구조인 왜곡된 심성의 파악과 더불어 이에 접목된 다양한 가치들을 창출해 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그가 말하는 '평화문화'란.

인간관계를 지배하는 권위주의적이고 갈등적인 문화적 요소를 인간 심성의 개발을 통해 상호 수평적이고 협조적인 문화로 개발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다. 따라서 평화문화는 신뢰, 평등, 그리고 관용과 자유에 대한 신념에 대초한 태도와 정향이다. 평화문화는 성찰적 태도, 감정이입적 역사사지(易地思之)의 사고방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화를 존중하고 대화를 통해 갈등과 다

신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반드시 의식적이고 고의적인 개입을 뜻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신체는 스스로 영향을 끼치며, 우리가 거의 이해할 수 없는 매우 복잡한 메커니즘을 통해 균형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이러한 회복기능을 위해 긍정적 조건들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요한 갈통,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강종일, 정대화, 임성호, 김승채, 이재봉 옮김), 들녘, 2000, 18쪽.

7)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은 평화문화교육의 소개, 교사들을 위한 단기워크샵 등을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주로 세계적 평화교육가인 Toh Swee-Hin 박사(말레이시아 출신의 중국계 학자, 필리핀, 캐나다, 호주 등지에서 평화교육 활동을 전개했고, 2000년 유네스코 평화교육상을 수상했다)의 전체적 접근(holistic approach) 방식을 따르고 있다.

8) 조민 박사의 연구패러다임은 평화윤리를 평화연구, 평화정책, 평화교육, 평화봉사 등 평화와 관련된 모든 실천적 활동과 이론적 이해를 위한 기초로 자리매김한 볼프강 후버의 패러다임을 원용한 것으로 보인다. 볼프강 후버, 『평화 윤리(Freidens Ethik)』(김윤옥 손규태 옮김), 대한기독교서회, 1997.

틈을 해결하려는 행동양식을 말한다.⁹⁾

한국사회의 평화문화 창출을 위한 조건으로 조민 박사는 안보와 평화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전통적 차원의 국가안보개념, 세력균형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대안적으로 공동안보(상호적 안보)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남북한 군축의 가능성을 타진한 후 한반도의 평화지대화과 탈군사화, 사회의 '탈군사적' 평화의 틈을 모색하고 있다.

강순원 교수는 평화교육에 참여하는 교사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사회 문화저적 재구성'을 제안하였다. 그는 한국사회의 비평화적 요소를 정치경제적 수준, 사회문화적 수준, 대인심리적 수준으로 분석하였다.¹⁰⁾ 그 역시 구조적 문제가 사회적 문제적 특징으로 귀속되고 이것은 다시 심인적 반평화의식으로 강화되어 반평화 구조를 재생산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낚으므로 평화에 대한 접근은 총체적 인식을 근간으로 제도개선, 문화형성, 그리고 의식형성을 동시적으로 이루어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제시한 사회문화적 평화구상은 ①종속적 사대문화에서 상호 의존적 지구촌 문화로, ②전쟁의존적 반공이데올로기에서 평화지향적 관용의 문화로, ③위계적 연고주의에서 실력위주의 사회문화로, ④강권적 군사문화에서 평등한 참여문화로, ⑤경쟁적 차별문화에서 자연친화적 공존적 인권문

9) 조민, 위의 책, 2쪽.

10) 강순원 교수가 분석하는 '한국의 반평화 구조모형은 (a)정치경제적, (b)사회문화적, (c)대인심리적 차원이다. 정치경제적 요인은 사회문화적, 그리고 대인심리적 차원을 동반하여 상호연관되어 있다.

(a) 식민지적 유제 == (b) 종속적 사대문화, 이중적 반일감정(양가감정)

== (c) 소비니즘적 동원적 애국심, 배타적 민족주의

(a) 민족분단 == (b) 반공이데올로기, 이중적 민족애

== (c) 대북 적대감과 흑백사고, 힘에 의한 양육강식 의식

(a) 군부독재 == (b) 군사문화, 강권주의적 동조문화, 위계질서적, 서열문화, 연고주의.

== (c) 사회적 도덕률의 실종, 인권유린, 한탕주의, 획일주의

(a) 관치, 재벌주도형 자본주의

== (b) 황금만능의 차별적 사회문화, 빈부격차로 인한 폭력의 사회화

== (c) 경쟁적 차별의식

강순원, 위의 책, 443쪽.

화로, ⑥폭력적 문화에서 비폭력의 문화로 등이며 이는 세계적, 지역권적, 국가적, 지역사회적 차원에서 동일하게 확대되어야 한다.¹¹⁾

5. 평화문화에 대한 전체론적 접근

평화문화는 이처럼 포괄적이고 전체적이다. 토 스웨힌 교수는 이를 평화문화형성을 위한 전체적 접근(holistic approach)을 구조화하였다.¹²⁾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평화교육, 국제이해교육은 모든 사람들, 공동체, 기관, 국가 운동들로 하여금 평화의 가치, 인식, 지식, 기술을 배양함으로써 이들이 비폭력적이고 정의로우며 자비롭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향해 손(기술), 가슴(가치), 영혼(인식)을 결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평화문화는 미래에 대한 우리의 비전인 동시에 과정으로 지금까지 군사주의와 전쟁을 위해 봉사해왔던 우리의 가치, 태도, 기술, 지식을 긍정적 대안을 위해 다차원적이고 지구적 차원으로 전환시키는 거대한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그에 의하면 평화문화를 건설하는 것은 다양한 색깔의 실로 직물을 짜는 것과 같다. 그것들을 다음과 같다.¹³⁾

(1) 전쟁문화를 탈피하는 일

11) 같은 책, 449쪽 이하.

12) Toh Swee-Hin,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Toward a Culture of Peace", *SangSaeng*(#1/1:), Autumn 2001, Asia-Pacific Centre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 River Flowing from the Mountains," *SangSang*, Autumn, 2002; 김매련, "평화를 위한 국제이해교육의 전체적 조명-태평양지역 교사를 위한 피지연수", 국제이해교육, 2002년 여름,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13) Toh Swee-Hin,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Toward a Culture of Peace", *SangSaeng*(#1/1:), Autumn 2001, Asia-Pacific Centre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10-12쪽.

평화문화는 우선 소극적 차원의 평화를 이룩하는 일, 즉 전쟁문화, 군사주의 문화를 제거하는 과제를 갖는다. 여기에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의 철폐도 포함된다. 지속가능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력분쟁을 비폭력적인 중재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증진시키는 일이 요구된다. 또한 잠재적으로 전쟁 촉발시키거나 사람들의 기본적 필요에 투입해야 할 한정된 자원을 무기도입에 투입하게 하는 무기거래를 중시시키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국가기관이 아닌 개별 시민들의 노력으로부터 성취될 수 있었던 역사적 대인지뢰금지협약은 우리들에게 전쟁문화 탈피의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희망적 성취였다.

일상 차원에서의 전쟁문화도 역시 극복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가정폭력, 총기소지의 확산, 매체에 의한 폭력성의 증가, 폭력적 비디오게임이나 무기장난감 등이 이에 포함된다. 학교 내 폭력문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갈등해결과 비폭력 훈련을 위한 가치배양과 기술훈련으로는 또래중재, "무기장난감 반대" 캠페인, 학부모-교사 협력체제 형성 등을 통해 안전하고 돌봄이 있는 학교환경을 만드는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미디어의 폭력성이나 사이버 공간의 폭력적 사이트를 거부하는 비판적 문해(critical literacy) 프로그램 개발 등이 시급하다.

(2) 구조적 폭력의 원인을 제거하는 일

착취와 억압의 형태를 띠는 구조적 폭력은 그 불의한 사회적 경제적 구조에 의해 실로 세계 대다수 인구의 기본적 필요조차 거부하고 있다. 개발에 대한 근대적 패러다임은 주로 북반구와 남반구의 소수 엘리트 기득권자들에게만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경제성장만을 과도하게 강조하였다. 더욱이 경제적 지구화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의 문화는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사회정의, 보다 평등한 세계에 기초를 둔 정책을 촉진시켜야 한다. 그 예로 남반구의 부채청산을 위한 Jubilee 캠페인, 정의로운 교육, 단순한 삶의 방식지향, 기업의 책무인식, 사람중심의 경제지원 등이 있다. 교육적 차원에서는 기아, 빈곤, 빈부격차, 개발프로그램에서의 여성과 원주민의 의 주변화와 빈곤화, 세계화 경제정책과 무역의 결과 등을 커리큘럼에 통합시켜야 한다.

(3) 인권을 신장하는 일

유엔인권선언에 기초하여 국가나 사적기업의 이해, 사회문화제도, 국제적 기구 등에 의해 침해되는 인권문제에 대해 다양한 차원의 캠페인이 전개되어야 한다. 기본적인 인권(생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평화 등)과 특히 여성, 어린이, 노인, 장애인, 원주민, 외국인노동자 등의 인권 보호가 더욱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인권교육은 공식적 비공식적 차원에서의 학교교육에서 확대되고 있다. 한편 인권교육이 진행되는 학교현장에서의 인권, 특히 학생과 교사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체벌, 규칙, 학습시간 등등).

(4) 지구와 평화롭게 사는 일

지구행성과 비폭력적으로 사는 것 또한 평화문화 형성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원주민들의 지혜가 가르치는 바대로 우리는 '7 세대'를 배려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는 세대간의 책임의 윤리 혹은 세대간의 정의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자손들을 생존조차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적 차원의 지속가능한 방식의 소비행태, 에너지 사용에서부터 환경파괴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개발 등을 반대하는 시민운동이나 로비활동 등까지 그 실천 영역은 다양하다. 교육적 차원에서 생태적 사고에 대한 교육, 생활에서의 3R 실천(재생 recycle, 재활용reuse, 덜 쓰기reduce) 등이 유용한 주제이다. 더 나아가 과도한 소비생활을 근원적으로 전환시키는 것 또한 우리가 직면한 도전이다. 경제질서 또한 북반구와 남반구 사이의 녹색정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5) 대화, 존경, 화해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일

이질적인 문화나 인종/종족적 정체성을 둘러싼 갈등들이 단순히 사회 내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넘어서 점차 비극적 폭력과 인종청소, 대학살 그리고 전쟁으로 점화되는 것을 우리는 냉전 이후 생생히 보아 왔다. 자원과 영토를 둘러싼 분쟁이나

역사적 불의를 시정하고자 하는 요구 등은 단순히 문화적 차이보다는 폭력적 갈등의 원인이 되어왔다. 아시아나 남미, 아프리카 지역에서 원주민들을 조상들의 땅에서 쫓아내고 광산채굴, 벌목, 농업산업화 등으로 전환시키면서 초래된 갈등 또한 심각하다. 이러한 오래된 갈등과 분쟁을 극복하는 일은 오직 '비판적 대화'(critical dialogue)(부록2 참조)와 협력활동을 통해서만 해결될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인종/종족 그룹, 공동체, 국가들은 분열의 뿌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이나 그룹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으며 화해와 치유를 이룰 수 있다. 여기서 문화간 평화(Inter-cultural peace)는 단순히 차이나 다양성을 표피적으로 축하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정의나 모든 인종과 인권에 대한 존중이라는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

(6) 평화심성, 내면의 평화를 기르는 일

위에서 언급한 것은 인간 삶의 관계와 구조에 있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최근들어 인간의 내면의 측면, 그 평화적 가치와 실천의 원천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점차 강조가 주어지고 있다. 내면의 평화를 가꾸는 데 있어서 다양한 전통, 신앙,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일 수록 외부적 혹은 사회적 평화를 위해 필요한 윤리적, 감성적, 영적 준비가 더 잘된다고 한다. 따라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신앙간, 종교간 대화나 화해 노력 역시 내면의 평화를 확고하게 하는데 필요한 지혜와 전략을 함께 나누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공부, 영적 자기개발 등에 몰입하고 있는데 이 또한 내면의 개인적, 심리적, 정서적 건강과 인간적 사회적 관계의 향상에 도움을 준다.

6. 평화심성의 사회화

내면의 평화를 이루는 자양분은 평화의 인식, 태도, 가치 등이고 이를 통해 평화감

수성을 형성을 형성할 때 폭력과 비평화에 대한 무감각과 무관심을 깨뜨리고 내면의 평화를 외적, 사회적 평화로 전환시킬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평화감수성은 인간에 내제된 심리적 경향이나 지향 보다는 평화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평화의 가치로 언급되는 것들이 바로 관용과 동정심, 나눔, 배려 등이다. 관용은 다름의 인정과 수용, 존중을 말함이고, 동정심(공감)은 고통에의 연민과 함께 함, 그리고 나눔(공유)은 물질적 자원, 힘, 지식, 정보의 나눔, 마지막으로 배려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 보장과 옹호를 지향한다. 이러한 평화의 가치를 가질 때 평화에 대한 기능주의, 상대주의적 접근에서 인도주의, 반전, 반핵, 비폭력, 생태주의라는 근본적이고 철학적 원칙을 가질 수 있게 된다.

◎ 자기검열과 자기성찰

평화심성, 평화문화 프로그램에서 내면의 평화에 이르기 위해 가장 많이 거론하는 것이 바로 자각, 깨달음, 성찰, 반성 등이다. 자기인식self awareness, 자기비판self criticism, 자기성찰self reflection이다. 명상가, 영성지도자는 명상이나 관상기도 등을 통해서 깨달음에 도달하는 과정을 설명하기도 한다. 탁날한 스님은 걷기 명상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 말, 생각, 의식을 바라보는 것(Mindfulness)을 가르쳐 주기도 했다. 성찰은 자기비하를 극복하게 하고 강요된 억압, 분리, 편견을 극복하고, 민중의 힘이나 스스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하여 창조적이고 건설적 사고와 행동으로 이끄는 힘이다.

성찰은 분단사회를 살아온 우리의 관성적 자기감시(monitoring)나 자기검열(censorship)을 극복하게 한다. 이데올로기화된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으로, 강요된 자기비판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 수용받고자 하는 욕구를 담고 있기도 하다. 예컨대 이데올로기적인 것(생체화된 반공주의)으로부터 생활습관, 소비행태, 자신의 몸이나 삶에 대한 혐오에서 다이어트, 성형수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자기검열은 순응과 동의의 문화(culture of compliance)의 토대가 된다. 자신에 대한 깊은 정신적인 깨달음이 없다면 그 사회 사람들이 가진 보편적 정서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¹⁴⁾

14) 조연현, "수행의 세계와 평화만들기", 평화심성훈련 프로그램 자료집 [나와 세상을 평화롭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2002년, 8쪽.

자기비판이 제도화되고 의식화(ritualize)될 때 초래될 수 있는 위험성도 지적해야 한다.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원죄의식(우리 모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이나 집단적으로 하는 "내 탓이요"의 탄원은 사회적, 구조적 모순과 책임을 개인적 차원, 종교 의식적 차원으로 환원시키거나 무화(nullification)시킬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 기독교인들이 자신을 죄인이라거나 "내 탓이요"라고 말하는 것에서 지배종교의 교리적 이데올로기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비판해야 하며, 더 문제인 것은 '죄인됨'이나 '내 탓'을 공적인 자리에서 고백하는 그들이 입으로만 지극히 습관적으로 하게 하는 것, 자기 책임성에 대한 무감각과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무능력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보다는 본래 자신의 성찰을 통해 그 책임성을 사회적인 것까지 확대시키거나 하고자 했던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에 내포된 자신의 언행 대한 양심적 판단과 이웃에 대한 책임, 사회적 책무 등에 대한 통합적 사고가 요청된다.

자기검열의 메커니즘에서 벗어나 자기반성으로 나아가는 문화적 토양은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가? 자기를 바라보는 것을 가로막고 타인의 시선을 통해서 자기를 감시하게 하는 억압의 문화를 극복하는 데서부터 출발할 것이다. 특히 어릴 적부터 자신을 표현하는 개방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 열린 교육 공간 즉, 대화와 토론, 논쟁, 경청이 중심이 되는 교육환경, 지식전달 교육에서 비판적 사고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참여학습의 확대.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태도와 기술훈련(의사소통, 대화, 중재, 협상 등), 사회적 갈등 당사자들의 합리적 대화를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 사회적 정치적 행위의 절차적 합리성 확대 등등. 이로써 히말라야나 인도에 간다든지 고도의 명상을 통해서 득도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소수의 성인이나 값비싼 수강료를 지불하고 참석하는 '명상'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깨달음'의 사유화나 상업화를 극복하고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자기반성을 가능케 하는 토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기반성에서 자신의 정체감, 폭력에 대한 인식과 무관심, 적대의식 등을 바라보게 한다.

◎ 정체성과 무감각, 무관심의 극복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나는 나"로서의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약점, 단점, 강점, 장점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의 나를 정확히 판단하고 인식, 인정할 때 보다 긍정적이고 개방적이며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나를 만들어 갈 수 있

다. 한 사회나 국가적 차원에서 본다면 올바른 역사의식, 현실인식, 실용주의를 결합시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될 때 한국인들에게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일본이나 미국에 대한 열등감과 우월감이 결합된 양가적 의식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흔히 정체성(문화, 종교, 인종, 종족, 성, 언어, 역사)은 갈등분쟁의 원인제공자로 비난받아 왔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아 존중감이 아닌 자만감과 이기심이나 탐욕이, 사회나 국가적 차원에서는 자기의 뿌리에 대한 애정이나 연민이 아닌 안보나 경제적 이해관계, 국수주의와 민족주의가 개별적 인간관계나 집단, 국가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정체성 그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 인간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심리적으로 소속감(sense of belonging)을 근원적으로 지향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정체성에 있어서 문제는 단일성이나 그 우월성만을 강조하는 우리의 확일성이나 이것이 초래하는 폭력성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장시켜나가는 일, 즉 다중적 정체성에 대한 개방성이 요구된다. 또한 자기의 정체성에서 소수자됨을 발견하여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와 연대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디는 권고하기를 우리들이 하는 일이 회의적인 생각이 들거나 사사로운 마음에 사로잡힐 때는 마음의 문을 열고 항상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생각하라, 어떻게 하면 그들을 위해 득이 되고 힘이 되어 줄 수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판단하라고 권고했다고 한다. 그는 억압받는 자들과 스스로 동일시하고 이들의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범을 보였는데, 이것은 (자신의) 안락한 삶에서 오는 (타인에 대한) 무관심을 극복하는 한편, 안락하지 못한 생활에서 오는 무기력증에서부터 자기를 채찍질하기 위함이었다.¹⁵⁾ 이렇게 자신의 다양한 정체성을 어떻게 건설적이고 창조적이며 책임적으로 평화와 정의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도 고민해야 한다. 비폭력 정치학의 대가인 글렌 페이지는 독일 녹색당의 페트라 켈리가 자신의 정체성과 경험을 어떻게 비폭력 평화와 정의, 인권, 생태학 등 대안적 세계관을 확립하는 데 사용했는지 잘 설명하고 있다. 조금 길지만 인용해 보기로 한다.

그녀는 한 인간으로서 말하며, 동시에 그녀 스스로가 비폭력적인 세계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호소한다. 그녀는 자신이 빈곤한

15) 글렌 페이지, “비폭력주의적 깨우침에 대한 간디의 공헌”, 『비폭력과 한국정치』(안정시, 정운재 옮김), 집문당, 1999, 166쪽.

“남쪽” 세계(South)와 대조되는 부유한 “북쪽” 세계(North) 사람이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인으로서 말하고 있다. 즉 폭력적인 과거사를 지닌 자기 나라 독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녀는 동서분단을 극복하려는 평화적 노력을 해왔으며, 동시에 미-소 강대국간 대결로서 초래된 독일통일의 폭력적 측면에 대해 고발하고자 했다. 다른 정치적 혁신가들과 마찬가지로 그녀는 2개 국어(독일어와 영어)에 능통하고, 다른 문화권(미국)에서 살았으며, 여러 국가들(호주, 인도, 멕시코, 터키 등)을 광범위하게 여행했다. 이런 여행은 대안적인 세계관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여성으로서 그녀는 남성의 인식 수준을 넘어 사물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었다. 또한 그녀는 10살에 암으로 죽은 여동생 그레이스(Grace)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알고 있는 가슴 아픈 언니이기도 했다.

켈리는 범지구적 의식이 증대되는 시대 안에서 살았고, 이것을 더욱 고무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그녀는 탐욕, 증오, 무지와 민족주의, 종족중심주의, 인종주의, 가부장제, 근본주의 종교 등에 의해 초래되는 대량살상, 환경파괴, 경제적 부정, 대규모 인권침해 등의 위협을 예리하게 의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인간의 생존과 복지에 대한 이 유례없는 위협의 한 가운데서, 그녀는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유례없는 비폭력 협력운동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¹⁶⁾

나는, 우리는 자기 안에 있는 다양한 정체성과 삶의 경험을 어떻게 정의와 평화를 위한 힘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 분단된 한반도의 사람들은 반세기 이상 지속된 그 고통과 억압과 적대의 세월을 중지하고 어떻게 평화로운 세계에 대한 새로운 모델이나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까? 평화를 위한 자기성찰이 진지하게 요청된다.

◎ 평화폭력에 대한 인식(부록 3참조)

유네스코의 평화문화프로그램 정착에 중요하게 기여한 것 가운데 하나가 1986년 5월 16일 스페인의 세비아에서 발표된 “폭력에 관한 선언문”(Statement on Violence)이다(선언문 주요내용 부록4 참조). 이 선언에는 인류학, 인성학, 심리학 등을 대표하는 저명한 학자 20여명이 참여하여 전쟁과 폭력은 인간의 동물적 근성

16) 글렌 페이지, “페트라 켈리(Petra K. Kelly)의 <비폭력이 권력에게 말한다>에 대한 ‘서문’”, 위의 책, 144쪽.

이나 유전적 요인에서 유래되는 것도 아니며, 우성학적 공격성이나 폭력적 두뇌조직과 본능의 산물도 아님을 천명하였다("전쟁이나 각종 폭력 행동이 인간 본성에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부정확하다....."). 유네스코 헌장에서 "전쟁은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므로, 평화의 옹호가 건설되어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에서이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¹⁷⁾ 여기서 우리는 인간정신이 본래 폭력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신념을 견지할 수 있으며, 인간의 생존에의 욕구, 소속에의 지향성 등이 어떻게 조건화되고 사회화 되는가, 즉 어떤 환경을 만나는가에 따라 그것이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으로 드러남을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내면의 평화나 평화심성, 평화감수성을 형성해 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성향들을 어떻게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으로 표출시키지 않고 문화적 혹은 문명적으로, 평화적으로 전환시키게 할 것인가라는 과제가 있다. 이것은 개인적 차원의 명상이나 깨달음을 통한 자기성찰에서부터 평화의 사회적 조건을 형성하는 일까지 다양할 수 있다. 드라마나 영화의 조폭이나 무협물, 경찰, 최근에는 bodyguard에 이르기까지 화면을 통해서 펼쳐지는 폭력장면들, 비디오게임, 국회에서 벌어지는 정치인들의 코미디와 같은 몸싸움, 가학적인 코미디.... 이들을 '폭력의 미학'이라 부르기에 그것은 사람들,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 폭력적이다. 우리는 진정으로 평화를 원하는가? "전쟁을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고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준비하라"는 말은 단지 국제관계에서의 전쟁과 평화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평화로운 사회와 가정, 그리고 나의 평화를 위해서도 지켜야 할 원칙이 되어야 한다.

한편, 누구든지 자신은 폭력적이지 않으며 평화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대개 자신이 가진 자원(물질, 지식, 정보, 인간관계, 물리적 힘 등등)을 통해서 권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것도 사실이다. 사회적 성공의 척도란 이를 말함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의 권력행사가 의도하지 않은 폭력성을 내포할 위험성도 한편 깨달아야 한다. 대개 그 대상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될 가능성이 많으며 폭력으로 인한 상처가 깊은 상흔으로 자리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17) "Since wars begin in the minds of men, it is in the minds of men that the defences of peace must be constructed." Constitution of the United Nations of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16, November 1945.

● 적대감의 극복

우리는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적'을 늘 곁에 두고 살아왔다. 그래서 이웃을 적으로 만드는 일, 사회적 사건에 대한 희생양 만들기, 학교나 공동체, 정치에서의 왕따 만들기, 따돌림하기 등은 일일이 거론하지 않아도 너무나 익숙하다. 이것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대상에 대한 무지, 두려움, 불신, 편견, 선입견, 알려고 하지 않음, 대화의 거부 등을 통해 형성된다.

한국사회의 압축적 근대화에서 형성된 경쟁심과 촌락공동체의 해체와 급속한 도시화, 물질적 성공과 승리주의 등은 사람들의 모든 관심을 나와 가족에게로 돌리게 하였다. 이웃, 사회, 국가, 세계에 대한 무관심과 무감각은 정치적으로 이데올로기로 조작되는 적대감이나 적만들기, 악마화 메커니즘에 대항하는 정치적 행동을 가로막는다.

적대감은 어떻게 형성되는가.¹⁸⁾ 이에 대해서 John E. Mack(M.D.)는 "Enemy System"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① 심리적 차원의 적대인념(안보나 국익이 충돌될 때 지도자들은 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에 기대어 타국을 비인간화하거나 악마화함으로써 선과 악으로 분리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적대적 태도를 취하게 하는 것)과 개인의 정치적 책임포기(개인의 책임을 기업이나 국가에 돌리는 경향성, 개인이 국가지도자나 엘리트로 구현된 국가이념을 자신과 동일시하여 자신들의 이름으로 적을 죽이는 행동의 결과에 대해 도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 ② 희박한 자원에 대한 경쟁(경제요소), ③ 문화, 종교에 대한 고정된 신념(주류자 의식, 종교적 정당성,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우월감, 선악이원론의 세계관, 정체성 등), ④ 국가적 차원의 책임전가(희생양 만들기, 내부적 원인을 외부적 요소로 돌리기, 국내 실업문제의 원인을 경제구조의 원인에서 찾기 보다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돌리는 것이나 경제 문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전쟁 등을 통해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외국에 전가하는 것 등) 등을 통해 설명하면서 가상의 적은 교육을 통해 비인간화(dehumanization)되고, 매스컴을 통해 악마화(demoniation)되면서 과장된 적으로

18)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갈등해결센터에서 발행한 <민주시민교육 시범커리큘럼과 일반 시범연수자료 개발: 함께만드는 평화, 공존의 갈등해결 교육>(2002)에는 적대감극복을 위한 교육매뉴얼이 수록되어 있다. "적과 적대감"- 만들어지는 적: 주적과 악의 축, 다른 나라에 대한 이미지, 적대감 형성과정 등.

일반 대중에게 전달된다고 보았다.

세계의 대표적인 분쟁지역들, 북아일랜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민다나오, 남아공 등에서의 평화교육의 경험은 사람들 사이에 내면화된 적대감이나 적이미지의 해소는 갈등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두 집단의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임을 보고하고 있다.¹⁹⁾ 오랜 분쟁과 갈등, 적대관계의 당사자들, 어린이들로부터 대학생, 교사, 여성 등등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얼굴을 직접 맞대고 만나는 경험(face to face encounter)이 오랜 적대감을 극복하고 서로 이해하고 다름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공존의 미래를 전망하게 한다는 것이다. 서로의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면서 참된 인간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²⁰⁾ 그 과정이 물론 쉽지는 않다. 적대적 관계는 결코 정치, 경제, 문화적 차원에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만남의 과정에서 힘의 역학관계에서 충돌이 나타나면서 서로에 대해서 거부감을 드러내거나, 쌓였던 편견이나 선입견이 표출되고 이것이 또 다른 갈등으로 점화될 가능성도 있다.²¹⁾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런 만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촉진자의 역할(facilitation)의 역할이 아주 기술적이고 세심하며 공감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촉진자는 교사나 시민단체 활동가에서부터 정치가, 외교관에 이르기까지 그 만남의 다양성만큼 여러 분야를 포괄할 것이다. 남북의 민간교류 역시 분쟁지역에서 문화적 맥락을 가지게 된 대화, 협상, 중재, 갈등전환의 태도와 기술 등 태도를 배울 필요가 있다. 남북교류라는 만남의 프로그램을 보다 기술적으로 발전시킴으로서 상호이해와 배움, 수용의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19) 정현백, 김엘리, 김정수,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의 만남』 통일교육총서,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2.

20) 임마누엘 레비나스의 타자윤리학은 얼굴의 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21) 이스라엘-아랍평화센터의 Encounter Program에서는 외부인이 보기에 위험할 정도로 이러한 충돌이 드러나기도 한다. 이스라엘-아랍/팔레스타인 사람들과의 관계가 평등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워크샵에서도 이러한 불평등한 관계가 노출되는 것은 당연하다. 오랜 경험에 의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불편한 관계로 시작하지만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서로의 입장을 단호하게 표명하면서도 공감적으로 받아들일 때 타협적인 자세의 접근보다 훨씬 더 상호수용과 이해가 촉진된다고 한다. 위의 책, 153-156쪽.

7. 7세대를 바라보는 인내와 희망과 비전

평화심성, 평화교육, 평화문화 형성을 위해서 장기적 전망을 가져야 함을 앞에서 언급했다. 아무에게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떻게 비폭력적 심성과 사회적 관계, 자연과의 관계, 더 나아가 미래와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를 낙관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케빈 클레멘츠는 “해답은 관계의 강화, 공동체와 사회와 시민 사회의 진전, 빈약한 국가체제의 강화 그리고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그룹과 다른 인식론에 기초한 사회간의 대화의 질에 달려있다.”고 말하면서 시머스 허니의 시 〈트로이의 치유〉를 소개하고 있다.²²⁾

역사는 말한다. 무덤의 이쪽에서는

희망하지 말라고.

그러나 인생에 한 번은

그토록 바라던 정의의 파도가

숫구치고

희망과 역사가 조화를 이룰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복수의 저 편에서

거대한 변화를 바라는 희망은

여기로부터 가 닿을 수 있는

더 먼 곳의 해안을 믿으며

기적과 치유의 샘을 믿는다

22) 케빈 클레멘츠, “분쟁지역에서의 평화교육,” 『국제이해교육』 2001 겨울 통권6호,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24쪽.

부록 1: 평화문화와 비폭력을 위한 선언 2000
(Manifesto 2000 for a Culture of Peace and Nonviolence)

2000년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
우리 모두 힘을 모으면
전쟁과 폭력의 문화를 비폭력의 문화로 바꿀 수 있다.
이를 위해 모든 사람의 동참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존엄과 화합의 세계, 정의와 연대의 세계, 자유와 번영의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가치를 넘겨주게 될 것이다.
평화문화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보호, 그리고 인간의 자아실현을 가능케 할 것이다. 우리는 미래세대에 대한 나의 책임을 인식하며, 나의 일상생활과 가정, 직장, 사회, 국가, 국제사회 속에서 아래 항을 실천할 것을 서약한다.

첫째, 차별이나 편견 없이 모든 사람의 존엄성과 삶을 존중한다.
둘째, 육체적, 성적, 심리적, 경제적, 사회적인 모든 형태의 폭력을 거부하며,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과 같은 약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비폭력을 실천한다.
셋째, 배타와 불의,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 억압을 종식하기 위해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의 시간과 물질적 자산을 이웃과 나눈다.
넷째, 광신과 비방, 그리고 타인에 대한 거부보다는 대화와 경청을 항상 선호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문화적 다양성을 옹호한다.
다섯째,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지구 자연의 균형을 보전하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책임지는 소비자의 행동을 통하여 지구를 보전한다.
새로운 형태의 연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 여성의 참여와 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하는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기여한다.

부록 2: 갈등해결의 기술로서의 대화

갈등해결(Conflict Resolution) 프로그램에서 채용하는 다양한 방법의 하나로서 '대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야기 나눔 차원을 넘어선다. 그것은 함께 이야기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고(not listen to)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자신이 무엇을 이야기 할 것인가에 더 골몰하고, 자신에게 기회가 오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쏟아 놓는 그런 '혼자하는 말(mono-logue)'은 더 더욱 아니다.

대개의 갈등은 오해나 대화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갈등은 그 성격에 있어서 관계적 즉 사회적인 것이며 따라서 대화의 과정, 다른 사람에게 다가감, 그들과 상호작용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인간관계의 보편적 형태는 대략적으로 다음 다섯 가지에 속한다. 공존, 경쟁, 십자군적 전쟁, 분리(apartheid), 협력 등. 우리는 상호 참아내는 차원에서의 공존이나 또 상대방을 지배하는 차원에서의 경쟁 등의 형태로만 살아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협동이나 협력적 관계 역시 결합이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협력관계에 이르기까지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 경쟁관계에서는 서로 등을 내밀고 얼굴조차 마주하려 하지 않는다. 경쟁을 넘어서 서로 얼마나 다른지,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등등 상호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화' 즉 둘이 말함(dia-logue)이 개입되는 시점이다.

진정한 대화가 실현되려면,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이 충족되어야 한다.

- (1) 존경 - "나는 네가 나와 다르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 (2) 존중/놀라움 - "나는 네가 나와 다르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기쁘다 왜냐하면 너의 다름으로 인해 나의 특성을 소멸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것은 나를 풍요롭게 하는 자원이 된다."
- (3) 사랑 - "나는 네가 다르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나는 너를 좋아한다."

여기서 질문해야 할 핵심적인 것은 "우리는 서로에게 다가갈 준비가 되었는가?"이다. 대화는 '개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다가감'(reaching out)이다. 그것은 너와 나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다. 현재의 갈등상황이 대화에 의해 단 시

일에 쉽게 해결되리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것은 긴 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둘러서는 안된다. 따라서 대화는 협상, 중재 등을 가능하게 하는 준비단계이기도 하다.

“대화는 인간관계에 있어 활력의 근원(lifeblood)이다.

그러나 대화의 장애물은 아주 많이 놓여있으며, 이를 넘어서는 사람은 아주 ‘적다.’”

- 안토니 드 멜로

-참고 *Panagtagbo sa Kalinaw: A Basic Orientation Manual toward a Culture of Peace for Mindanao Communities*, CRS(Catholic Relief Service Philippines), OPAPP(the Office of the Presidential Adviser on the Peace Process), unicef(UN Children's Fund), MinCarrd, Kalinaw Mindanaw, 1998, pp. 71-74.

부록 3: 나의 평화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

1.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엄격한 통제와 질서가 필요하다.
(1) 전혀 동의안함 (2) 대체로 동의안함 (3) 대체로 동의함 (4) 매우 동의함
2. 사회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법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비상조치라도 사용하여야 한다.
(1) 전혀 동의안함 (2) 대체로 동의안함 (3) 대체로 동의함 (4) 매우 동의함
3. 내 자식은 맞고 돌아오는 아이 보다 때리고 돌아오는 아이로 만들겠다.
(1) 전혀 동의안함 (2) 대체로 동의안함 (3) 대체로 동의함 (4) 매우 동의함
4. 가정이나 학교에서 훈육을 목적으로 하는 체벌에 반대한다.
(1) 전혀 동의안함 (2) 대체로 동의안함 (3) 대체로 동의함 (4) 매우 동의함
5.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남을 지배하고 싶어한다.
(1) 전혀 동의안함 (2) 대체로 동의안함 (3) 대체로 동의함 (4) 매우 동의함
6. 인간의 본성은 공격적이므로 전쟁은 불가피하다.
(1) 전혀 동의안함 (2) 대체로 동의안함 (3) 대체로 동의함 (4) 매우 동의함
7. 국가안보를 위해 군사력, 무력은 필수적이다.
(1) 전혀 동의안함 (2) 대체로 동의안함 (3) 대체로 동의함 (4) 매우 동의함
8. 국가안보의 강조는 결국 나라간 무기경쟁을 상승시킬 뿐이다.
(1) 전혀 동의안함 (2) 대체로 동의안함 (3) 대체로 동의함 (4) 매우 동의함
9. 분쟁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1) 전혀 동의안함 (2) 대체로 동의안함 (3) 대체로 동의함 (4) 매우 동의함
10.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체벌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1) 전혀 동의안함 (3) 대체로 동의안함 (4) 대체로 동의함 (5) 매우 동의함

** 본 설문은 여성개발원, 여성의 평화운동 의식조사 자료(2000년)를 참고로 하여 보완한 것이다.

부록 4: “폭력에 관한 선언문” (Statement on Violence)

- 1986년 5월 16일 스페인 세비아

첫째, “인간이 전쟁을 하는 품성을 동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부정확하다.....”

둘째, “전쟁이나 각종 폭력 행동이 인간 본성에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부정확하다.....”

셋째, “인류의 진화과정 중에 공격적 행동이 다른 종류의 행동보다 우세하게 선택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부정확하다.....”

넷째, “인간이 ‘폭력적 두뇌’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부정확하다.”

다섯째, “전쟁이 ‘본능’이나 하나의 특정 동기에 의해서 야기된다고 말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부정확하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론짓는다.

인류는 생물학적으로 전쟁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인류는 생물학적 비관주의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오늘 ‘세계평화의 해’와 향후에 요구되는 전환적 임무를 자신있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임무는 주로 제도적 집단적으로 성취되어야 하는 일이긴 하지만, 개별 참여자의 의식에도 의존하고 있는 바, 문제는 장래를 낙관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도 크게 좌우된다. 마치 “전쟁이 인간의 마음속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평화 역시도 우리 마음 속에서 시작된다. 전쟁을 발명한 인류는 평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책임은 바로 우리들 각자에게 있는 것이다.

** 출처, 글렌 페이지, “비폭력주의적 깨우침에 대한 간디의 공헌”, 비폭력과 한국정치, 집문당, 1999, 164-165쪽.

페미니즘 국제정치학 관점에서 본 안보개념의 해체와 재구성¹⁾

황영주 부산외대

학생들과 함께 영화를 보았다. 나의 주된 관심 또는 세부적 전공과는 별로 상관없이 보이는 외교정책론이라는 수업을 위해 자주 보았던 ‘D-13’이라는 영화를 이번 여름 방학에는 국제정치학개론 시간에 다시 사용했다. 사실상 수업시간에 영화를 사용하는 시도에 대하여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 일부 시선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텍스트로서 많은 것들을 학생들에게 (또는 나 자신에게) 제공해준다. 명화극장은 물론 옛날 TBC의 수요 명작극장까지 놓치지 않은 영상세대라 스스로 자부하면서도 아직 폭넓은 영화와 영화관련이론을 섭렵하지 못한 나로서는 아주 천박한 형태로나마 영화와 국제정치(학)의 관련성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다. 즉 영화는 대표적인 영상매체로 “...단순한 영상과 문자의 일차원적 관점이 아니라, 인간 존재방식과 사유 형태를 재구성하고 지식의 패러다임을 갱신한다는 점에도 중대한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²⁾는 것에 동의하는 정도에서 말이다. 일면 영화를 통한 정치적 담론의 형성 가능성에 주목을 하는 시도들이 있지만,³⁾ 지금까지 많은 정치학적 관심은 이런

1) 이 글의 일부는 황영주,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이 보는 안보와 평화의 문제’, 한국국제정치학회 발표논문집 (2003)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고쳐 쓴 것이다.

2) 김우창외, 이미지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풀빛 (1999), 머리글.

것들에 대하여 외면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쿠바 미사일 위기⁴⁾를 다루었던 D-13이라는 영화는 얼핏 보기
에 다른 어떤 국제정치학 교과서보다도 외교정책의 결정과정에 대한 상세한 이론과
논의들을 포괄하면서 아주 명료한 형태로 그것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⁵⁾ 실제로 수업시간에 이 영화를 이용하는 것도 학생들에게 생소하고 어렵게 느

3) 나의 개인적인 시도로는 '영화 <해피엔드>, 정치 그리고 여성' 한국여성정치문화연
구소 창립 11주년 기념 제 30회 여성정치 대토론회 자료집 (2000)을 들 수 있다. 영
화를 국제정치학의 텍스트로 사용하기 위한 연구와 관련된 논문은 Scott Waalkes,
'Using Film Clips as Cases to Teach the Rise and "Decline" of the State',
International Studies Perspectives 제4집 2호 (2003)를 참조하라. 이 논문에서 저
자는 영화 '헨리 5세(Henry V)', '엘리자베스 (Elizabeth)', '미션(The Mission)', '라이
온일병구하기(Saving Private Ryan)'등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국민국가의 성장과 쇠망
을 해석하고 설명하려고 한다; 나는 비단 영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학작품, 영상 매
체 등을 주제 또는 메타포를 사용하는 젠더 정치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대
표적인 경우로 '심청전읽기로 본 한국 근대국가와 여성', 한국정치학회보 제34집4호
(2001); '밀키스, 쾨지우 그리고 4.13총선에서의 여성', 21세기정치학회보 제10집1호
(2000); '한국여성이 IMF 프로그램을 만났을 때: IMF 극복전략의 성차별성과 그 구
조화', 담론 201 제3집3호 (2000); '평화, 안보 그리고 여성: 지구는 내가 지킨다의
페미니즘적 재정의', 국제정치논총 제43집1호 (2003) 등이 바로 그것이다.

4) 한 국제정치학개론 교과서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1962년 10월 소
련의 흐루시초프 수상은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했다. 이것은 쿠바 카스트로의 요
청에 의한 것이기도 했지만 미국에 비해 절대 열세에 있는 소련의 전략 미사일 불균
형을 시정하고자 하는 의도, 또 터키에 있는 미국의 미사일 기지에 대한 소련의 대응
으로 볼 수 있다. 쿠바의 미사일 기지는 미국 플로리다로부터 90마일 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위치했고, 여기서 발사된 미사일은 8분이면 미국 본토에 도착하는 등 미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게 되었다.....케네디는 해상봉쇄를 선택했고 10월 22일 공
식적으로 쿠바내의 미사일 기지의 존재와 해상 봉쇄 그리고 미사일이 철수되어야 한
다는 것을 발표했다. 24일 봉쇄가 시작되었고 쿠바로 향하던 소련의 선박은 되돌아갔
다. 그리고 10월 28일 케네디는 소련의 쿠바의 미사일을 철수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발표하게되면서 쿠바 미사일 위기는 종결되었다. 미국은 소련의 양보 대가로 쿠바를
침공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터키에 있는 미국의 미사일을 철수할 것을 약속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는 핵전쟁과 3차대전의 가능성을 실감하게 되었고 미·소는 위
기시대의 의사소통을 위한 직통 핫라인을 개설하게 된다." 유현석, 국제정세의 이해, 한
울아카데미 (2003), 37쪽.

겨지는 외교정책이론을 보다 쉬우면서도 명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한 동기에서 출발
하였다. 실제로 나의 설명에는 별로 흥미를 보이지 않던 일부 학생들도 이 영화를
통해서 위기관리,⁶⁾ 집단동학, 의사결정자 및 의사결정 모델⁷⁾과 같은 외교정책의
의사결정에 관련된 이론을 비교적 쉽게 이해하기도 한다. 이 뿐만 아니라 외교정책
결정에서 외교관의 참여 및 부처간의 갈등⁸⁾ 등에 대해서 알게되고, 나아가서는 군
산복합체가 무엇인지 또는 여론이 왜 중요한지를 쉽게 이해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도 냉전(the Cold War)의 체제와 구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
영화를 통해서 어렵사리 그것들에 대하여 이해하기 시작한다. 때에 따라서는 이를
통해 쿠바 미사일 위기가 러스크(Dean (David) Rusk)가 이야기 한 대로 "지금까지
가장 위험한 위기"⁹⁾이었다는 사실 또는 "핵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상호간의 대
처"¹⁰⁾인 것에도 공감한다. 어떤 정치학방법론 교과서에서는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쿠바 사태에 대하여 공갈게임(called bluff)으로 소개하면서, '과학적' 국제정치학
경향, 예컨대 합리적 선택이론의 본보기로서 죄수의 게임과 겹쟁이 게임의 결합을
시도하고 있다.¹¹⁾

이 영화의 가치는 물론 (국제)정치학의 수업용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 영

5) Jerel A. Rosati, 'Ignoring the Essence of Decisionmaking',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제3집1호 (2001), 178쪽.

6) Richard M. Pious, 'The Cuban Missile Crisis and the Limits of Crisis
Management', Political Science Quarterly 제116집1호 (2001).

7) Barton J. Bernstein, 'Understanding Decisionmaking U.S. Foreign Policy, and
the Cuban Missile Crisis', International Security 제25집1호 (2000).

8) Timothy J. McKeown, 'Plans and Routines, Bureaucratic Bargaining, and the
Cuban Missile Crisis', The Journal of Politics 제63집4호 (2001).

9) James G. Blight, Joseph S. Nye Jr., and David A. Welch, 'The Cuban Missile
Crisis Revisited' Foreign Affairs 제66집1호 (1987), 170쪽.

10) John L. Scherer, 'Reinterpreting Soviet Behavior during the Cuban Missile
Crisis', World Affairs 제144집 2호 (1981), 110쪽.

11) 오명호, 현대정치학방법론: 이론과 주요접근 방법을 중심으로, 박영사 (1995), 281
쪽.

화는 “가장 재미없을 것 같은 소재를” 흥미진진하게 영화화하는데....”¹²⁾와 같은 자본주의적 관심을 보여주는 대상이 되기도 하고, 아울러 “관객들로 하여금, 조지 부시가 그 같은 상황 아래 놓여있었다라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에 빠지게 하는 것”¹³⁾ 또는 “‘영화적 진실은 항상 ‘역사적 진실’을 멋대로 뒤틀어....”¹⁴⁾는 해석과 같은 진지한 자세를 불러내기도 한다. 이를 본받아 나도 짐짓 이 영화에 대하여 성찰적 자세를 가지려고 한다. 내가 앞에서 수업시간에 설명하고 교습하려고 하였던 외교정책이론이 강조하는 과학적 객관성(the scientific objectivity)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만 보기에는 이 영화에 포함되는 이미지가 너무나 포괄적이면서 강렬하다. 나는 이 영화 속의 내용과 교훈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려고 한다. 나는 이 영화 속에서 이 영화가 충실하게 묘사하고자 하는 쿠바 미사일 위기(the Cuban Missile Crisis)라는 당시 냉전의 ‘현실’과 이 영화가 갖는 계몽적 메시지 즉 우리 모두의 행성이라는 ‘이상’이라는 비교적 간단히 대립되고 있는 이미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실제로 이러한 (냉전적)현실과 (계몽적)이상은 이 글에서 행하고자 하는 연구 목적과 결합되고 있다. 한편으로 볼 때 이 영화는 냉전의 끔직한 순간들을 현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13일간 미국의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미사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우리는 영화를 통해 당시 냉전의 대립을 현실감 있게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은 실제로 이상과 미래가 없는 현실을 그려내는 것에 불과했다. 이러한 현실만 있었다면 영화는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볼 때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감동은 결국 전쟁을 막을 수 있었다는 인간성에 대한 신뢰에서 출발하는지도 모른다. 실제로 이 영화는 ‘인류공동의 평화’라는 이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하여 감동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상은 결국 인간이 하나의 행성에 존재하는 공동의 거주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민족과 국가는 덧없음을 확인해주시기도 한다. 마치 영화 속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밋밋한 현실을 이상이라는 감동으로 채워나가는 것처럼, 이 글에서는 전통적인 국제정치학이 그려내고 있는 녹녹하지 않은 현실을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에서는

12) 이동진, ‘소련미사일이 터질 쿠바에...’신이여”, 조선일보 2001.5.27자.

13) ‘조지 부시라면 어땠을까? : 케네디를 그리워하게 만드는 (D-13)’, 세네21, 2002.12.13자.

14) 문석, ‘터키가 아니라 쿠바였어...’을 둘러싼 몇가지 사실들’, 세네21, 2001.5.10자

보다 따뜻한 가슴으로 품어내려고 한다. 이는 미사일 위기의 해결이 극히 낭만적 입장의 제안에서 출발했었다는 평가와도¹⁵⁾도 관련될 수도 있고, 역설적으로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지구촌 평화의 염원에 대하여 더 깊은 관심¹⁶⁾을 기울이게 된 것 과도 관련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 연구에서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보다 정확하게는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이 기존 또는 종래의 국제정치(학)의 중심개념인 안보(와 평화)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체하며, 재구성하고 있는지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쿠바 미사일 위기(또는 그것을 그린 D-13이라는 영화에 대한) 비판적 해체(the critical deconstruction)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한다. ‘현실세계 또는 만들어진 세계: 페미니즘의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에 대한 비판’은 현재 페미니즘 국제정치학 진영에서 행하고 있는 기존의 국제정치(학)에 대한 비판을 주로 살피고 있다. 이곳에서는 실제 전통적 국제정치학이 존재론적으로 인식론적으로 이미 젠더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는 지금까지 국제정치(학)에서의 ‘현실’이라는 것이 사실은 일부 (백인) 남성의 시각에서 출발한 부분적인 것(the partial fact)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영화 속에서 그려내는 현실이 실상은 젠더화된 일부 정책결정자들의 현실에 대한 하나의 관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과도 관련된다. ‘끔직한 위기와 평화로운 결과: 안보 연구의 새로운 쟁점과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에서는 주로 기존 안보 개념에 대한 비판을 다루고자 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국가와 군사력 중심의 안보 신화를 파괴하는 여러 저항들이 후기 실증주의자들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의한 안보 논의는 기존의 안보 담론이 부분적이고 편협된 것으로 비판하고, 그 개념의 확장에 대하여 주장한다. 물론 이는 페미니즘 안보연구와 적절하게 결합되기도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영화 속에서 그려지는 것처럼 미국 국익의 확보는 군사적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상대방과 대화하고 인정하는 것을 통해 얻어내었다는 역사적 사실과도 연관된다 하겠다. ‘우리 공동의 안보: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에서의 포괄적 또는 대안적 안보 개념’에서는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에서 다루는 안보의 개념

15) Scherer, 앞의 글(주10), 111쪽.

16) Josep J. Fahey, 'The Task ahead for Peace Studies', Peace Review 제14집1호 (2002), 81쪽.

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자 한다. 한편으로 현실주의적 관점의 해체와 다른 한편으로 후기 실증주의자들의 젠더에 민감하지 않는 관점도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페미니즘의 젠더에 민감한 관점(gender-sensitive)으로 안보개념을 재구성하는 작업에 대하여 추적하고자 한다. 이는 결국 여성이라는 위치지움을 수용하면서도(페미니즘), 동시에 국제정치 및 국제정치체제가 직면한 여러 문제(국제정치학)를 슬기롭게 해결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실은 이러한 안보 개념은 영화의 마무리에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의 연설에도 등장하는 '진실된 평화,' '영원한 평화'와도 관련된다 하겠다.

쿠바 미사일 위기를 해결한 숨은 공로자가 있다면 어쩌면 핵전쟁의 발발이 인류와 인류의 미래를 파괴한다는 '깨어진 크리스탈 효과(the shattered crystal effect)'¹⁷⁾라는, 즉 공멸을 피하고자하는 '소극적' 노력이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에서는 인류 공멸에 대한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하나의 행성에 함께 사는 모든 생물체에 대한 '적극적' 공동 안보에 대하여 보다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 연구는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이 전통적인, 특히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안보 개념을 어떤 방식으로 해체하고 재구성하는지에 대하여 살피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현실세계 또는 만들어진 세계

(the real world or constructed world):

페미니즘의 전통국제정치학에 대한 비판

핵전쟁의 위기 또는 사상 초유의 강대국간의 갈등으로 알려진 쿠바 미사일위기, 즉 국제정치(international affairs)를 다루고 있는 이 영화, 도저히 사적 담론에 한눈

17) James G. Blight and Janet M. Lang, 'Burden of Nuclear Responsibility: Reflections on the Critical oral History of the Cuban Missile Crisis', *Peace and Conflict: Journal of Peace Psychology* 제1집3호 (1995), 234쪽.

팔 여유가 없어 보이는 이 영화는 뜻밖에도 극히 일상적인 것에서 시작된다. 영화는 백악관의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는, 향후 케네디 대통령과 동생 케네디와 함께 핵위기를 다룸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최소한 영화속에서는) 대통령 특별 보좌관인 오도넬(Keeny O'Donrell)이 어느 가정에서처럼 가족과 함께 아침을 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있다. 아울러 이 영화는 또한 역시 핵위기를 해결하고 난 다음 일요일 아침에 오도넬의 가족이 함께 아침식사를 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 심지어 백악관에서 오는 직통전화도 무시하면서, 아마 거대한 국제정치의 담론을 다루는 이 영화의 시작과 끝을 사적인 공간으로 알려진 가정의 영역으로 장식한 것은 어떻게 보면 영화의 긴장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연출방법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에게 있어 이러한 영화의 장면들은 미국 사회를 분석한 최근의 연구서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가족과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즉 "미국인들에게 가정과 가족은 이렇게 꼭 지키고 보호해야만 하는 최후의 상징적 보루..."¹⁸⁾인 것을 영화는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나에게 있어 이러한 영화 속의 가족 담론은, 실은 지금까지 전통적인 (국제)정치(학)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사영역의 분리가 덧없음을 보여주는 것과 관련된다. 예컨대, 내가 가진 질문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적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한다는 영화 속 군인들의 공적 애국 담론은 사적인 가족 담론과 어떤 차이점을 가질까? 국제정치(학)는 왜 항상 공적 영역으로 포장되고 있는가? 왜 영화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담론을 교차시키고 있는가? 실은 이러한 경계 뛰어넘기(transgressing boundary)에 대한 시도는 이미 많은 사적영역의 담론을 중요시 여기는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자들의 전통적인 국제정치학 특히 현실주의 국제정치에 대한 조롱에서 출발한다. 어쩌면 이러한 조롱은 영화 속에서 그려내는 백악관 내부의 모습에서 여성들의 역할은 '비서와 타자수'로 국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도, 이들 비서와 타자수가 없었다면 미국 외교정책의 원활한 수행은 불가능했다는 인로의 주장¹⁹⁾에 더욱 관심이 가는 것은 내가 젠더 정치(gender politics)를 전공하기 때문인가?

18) 김성곤, 영화로 보는 미국: 할리우드 영화의 문화적 의미, 살림 (2003), 89쪽.

19) Cynthia Enloe, *Bananas, Beaches, and Bases: Making Feminist Sense of International Politics*, Univ. of California Press (1990), Chapter 5.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자들은 지금까지의 국제정치(학)의 주제, 관심 및 쟁점 등이 이미 젠더화되어 있다는 점을 상세하게 지적하고 있다. 남녀차별이 존재하지 않으며, 무성(無性)적으로 보이는 국제정치학은 사실상 남성의 이해와 관심을 주로 반영한, 즉 남성 정체성(identity)과 일치(identify)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사회현실(social reality)을 충실하게 묘사, 설명, 처방하는 것이 학문의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한다면, 학문은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경험과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실에 대하여 이야기 할 수 있어야만 한다. 하지만 지금의 국제정치학은 이러한 부분에서 다양한 사회현실을 그려내는데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회 속에서 전형화된 남성의 이미지 -강인함, 용기, 힘, 독립 및 무력을 기꺼이 사용하려는 점- 는 국제정치학에서 자주 발견되고”²⁰⁾ 있으며, 기존의 “국제정치학의 담론은 국제관계이론의 문헌적 분석을 통하여 어떻게 남성적 정체성이 창조, 형성 및 유지되는 지를...”²¹⁾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출발에서 전통적인 국제정치학이 남성적 영역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나는 전통적 국제정치학이 남성성(masculinity)을 가진다는 존재론(ontological) 및 인식론(epistemological)적 배경에 대하여 비판하고자 한다.

먼저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자들은 전통적인 국제정치학의 존재론이 국가(state)를 매개로 한다는 점을 비판한다. 주로 국제정치를 권력의 투쟁으로 묘사하고 있는 현실주의적 관점²²⁾에서 볼 때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유일한 행위자이며, 아울러 국가

20) Kathleen R. McNamara, 'Whose Security?: Feminism and International Relat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제46집 2호 (1993), 548쪽.

21) Anne Sisson Runyan, 'Still not "at Home" in IR: Feminist World Politics Ten Years Later', *International Politics* 제39집 (2002), 362쪽.

22) 국제정치학의 기본 현상을 권력 또는 힘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국제정치학의 현실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권력현상을 주로 분석 대상으로 삼는 국제정치학파를 바로 “현실주의(realism)”라 이름 붙이는 것도 이와 같은 가정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것이다.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에서는 국제정치학 자체를 권력현상으로 설명하려는 이 시도가 국제정치학이 남성적 관심을 보여주는 예라고 지적한다. 티커너(J. Ann Tickner)의 주장대로 “흔히 남성다움은 폭력 및 무력의 사용, 국제영역에서 행하여지는 하나의 행동 양태로 아울러 국가를 방어한다는 명목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거나 지지를 받아...” J. Ann Tickner, *Gender in International Relations*(여성과 국제정치, 황영주의 옮김, 부산외대 출판부 (2001), 22쪽. 즉, 국제

자체가 가장 중요한 가치를 소유한다고 강조한다. 이들에게 있어 국가는 ‘이상화된 정치적 공동체(idealised political community)’로서 세계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 된다.²³⁾ 페미니즘은 국제정치학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인정받는 국가와 관련된 여러 담론들도 젠더화되어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현실주의 국제정치에 다루고 있는 국가라는 개념은 남성의 정체성이 반영되어 있고, 국가의 행위를 남성의 행위로 추상화시키는 경향이 농후하다는 주장이다. “현실주의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자유롭게 동맹을 만들고 깰 수 있는 (그러나 타국의 문제에는 간섭하지 않는) 분리되고 자율적인 행위자로서 국가라고 하는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자율성 개념은 앞에서 묘사한 남성 심리를 반영한 것이다.”²⁴⁾ 국제정치에서 국가 행위의 기반이 되는 개념인 자율성(autonomy)은 결국 남성 정체성의 추상화에서 출발된 것이다. 나아가서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은 국가의 기반이 되는 주권(sovereignty)의 개념 또한 남성(성)에서 출발하였다고 본다. 국제관계에서의 주권은 결국 국가가 갖는 고도의 자율성 및 독립성의 외부적 표현으로 이해되어야만 하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되었던 국가의 남성적 특질의 또 다른 이해 방식이라는 것이다. 특히 주권이라는 개념의 확정이 17세기 근대국가체제의 발전과 병행되었다면, “국가주권과 합리성은 보편적인 객체 즉 ‘과학적’ 법칙의 발견으로 인정된 계몽주의 인식론의 일부인데...서구의 근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객관성과 합리성과 같은 개념은 대개 남성적 사고와 관련되는 근대성의 남성적 특징이 확정되는 시기이기도 하다.”²⁵⁾ 주권과 관련된 보다 흥미로운 사

정치학에서 권력현상은 남성 정체성(identity)의 반영물이라는 것이다. 이를테면 국제사회에서 정복과 강인함에 가치를 부여하는 남성다움이 우위의 가치로 자리잡는 것은 패배와 약함과 같은 여성적인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것과 항상 함께 간다는 것이다. 김엘리, ‘군사주의, 여성, 탈군사화를 위해서’ 나의 삶에서 우리의 평화론: 군사주의와 여성인권, 국제회의 자료집 (2002), 10-11쪽.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국제정치학의 주요 개념으로 인정받는 권력은 주로 남성성(masculinity)만을 반영한 것으로, 포괄적 인간의 경험에서 유추한다면 여성성(femininity)을 무시하거나 고려하지 않을 것이 된다. 이렇게 될 때 기존의 국제정치(학)는 부분적(partial)인 것이 된다.

23) Richard Wyn Jones, *Security, Strategy, and Critical Theory*, Lynne Rinner (1999), 95-96쪽.

24) Joshua, S. Goldstein, *International Relations*(국제관계의 이해, 김연각·김진국·백창재 옮김), 인간사랑 (2002), 157쪽.

실은 피터슨(V. Spike Peterson)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녀에 따르면 근대 국가 형성에 있어 주권개념의 형성은 바로 주체(self)/타자(other)의 구획 짓기와 관련되는 데, 이러한 구획 짓기는 정치적 자국/타국의 개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적 주체(masculine self)/여성적 객체(feminine other)의 젠더 구별과 유사성을 가지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여 국가주권의 개념형성은 남성성 개념의 확장과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다.²⁵⁾

기존 국제정치(학)이 갖는 인식론에 대한 페미니즘 진영에서의 비판 또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그 하나는 이분법(the dichotomy)이며 다른 하나는 과학적 방법론(the scientific method)이 갖는 남성화된 편향성의 문제이다. 이분법은 국제정치학의 기본적 인식론을 제공한다. 사회는 물론 국제정치에서도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으로 구분하는 젠더화된 이원적 대립(the gendered binary opposition)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원적 대립 구조는 세상을 결국 공적/사적, 객관/주관, 주체/타자, 이성/감성, 자율성/관계성 및 문화/자연으로 이원화시키는 경향을 의미한다.²⁷⁾ 특히 이러한 이원적 대립구조는 국제정치학에서 국내/국외, 질서/무질서, 전쟁/평화, 안전/불안전 등과 같은 이원적 인식론으로 전환된다. 후술하겠지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제관계의 담론은 주로 국내적 질서/국제적 무질서로 구별하는 경향이 짙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이원적 대립구조는 여성에 대한 억압과 관련되는 젠더의 구성방식²⁸⁾과 동일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별의 위계적 구성은 여성에 대한 억압을 존속시키는 고정되고, 변화되지 않는 특성을 만든다.”²⁹⁾ 달리 표현해본다면 지금의 국제정치학이 갖는 국제정치현실에 대한 이원

25) Tickner, 앞의 글(주22), 113쪽.

26) V. Spike Peterson, 'Subjectivity, Security and Sovereignty: Making Connections',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1996년) 연례학술회의 발표논문, 5쪽.

27) Mcnamara, 앞의 글(주20), 548-549쪽.

28) “서구적 젠더의 이해는 문화적으로 결정되어진 이원적 구별에 기초한 것이다. 예컨대 공과 사, 객관과 주관, 자신과 타자, 이성과 감성, 자율성과 의존성 및 문화와 자연이 바로 이원적 구별의 예라 할 것이다.” Tickner, 앞의 글(주22), 24쪽.

29) Tickner, 앞의 글(주22), 24쪽.

적 인식구조는 결국 여성에 대한 성적 차별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 된다.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에서의 신랄한 비판은 기존의 국제정치학이 지향하는 과학적 방법론에 대하여 보다 집중되어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국제정치에서 과학이란 결국 “이미 존재하는 자연의 기계론적 법칙을 통해 세계를 발견할 수 있다는 시도이다.”³⁰⁾ 하지만 이러한 과학과 관련된 일련의 지식은 그 발전단계에서 이미 젠더화 되었다는 지적이다.³¹⁾ 이러한 주장의 요체는 과학적 지식의 구성과정에서 여성은 배제되고, 특히 국제관계학이라는 학문에서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다. 즉, “....현실주의와 신현실주의는 국제정치학의 ‘과학’ 발전을 주장하면서, 국제정치체제에서의 국가의 행위가 보편적이며 객관적인 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믿었다.”³²⁾ 하지만 이는 다음과 같이 젠더화되어 있었다.

국제관계에 관한 페미니즘의 저작물들은 국제관계학이 객관성이라는 허울(the guise of objectivity)로 여성보다는 남성의 전형적인 경험에 주목하고 있다고 비판하다. 예컨대 합리적 선택 이론가들의 무정부 국제체제에서 국가의 도구적인 경쟁행위에 관련된 설명은, 역사적으로 볼 때 주로 시장에서의 행위자로서의 남성과 관련된 자기 이익추구의 행위와 유사하다는 것이다.³³⁾

동일한 맥락에서 피터슨(V. Spike Peterson)은 국제관계학의 과학적 접근에 대하여 보다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녀는 “....실증주의적 설명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주체적이며 이성적인 자아(sovereign rational subject)’는 일종의 허구인데, 이는 주로 엘리트 남성의 경험과 남성성에 기초하였기 때문....”³⁴⁾이라고 지적

30) J. Ann Tickner, 'Searching for the Princess?: Feminist Perspectiv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Harvard International Review 제21집 (1999), 46쪽.

31) “17세기에 초기에 들면서 과학적 논증(scientific reasoning)은 분명히 남성적인 것으로 만들어졌고, (이들 남성적인 것과는 다르게) 배제되어 있는 것들을 여성적인 것으로 분류하면서, 남성적인 것을 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고양시켰다. 지식을 갖는 자로(knower)로서의 남성은 과학과 이성으로 일체화되는 반면; 여성은 감성과 비이성적인 것과 관련되었다.” Tickner, 앞의 글(주30), 46쪽.

32) Tickner, 앞의 글(주30), 46쪽.

33) Tickner, 앞의 글(주30), 46쪽.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객관적 지식의 소유자이든 자율적 정치적 행위자이든 이 주체적인 남성은 여성을 인식론적으로 정치적으로 대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³⁵⁾ 즉, 페미니즘 이론가에 따르면 국제관계학의 과학화는 젠더화된 남성적 인식론의 또 다른 보기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국제관계학의 존재론 및 인식론적 구조는 얼핏보기에 무성(無性)적으로 보이지만, 그 내부에는 철저한 성차별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영화 속에서 많은 정책 전문가 -그 중에는 냉전의 실질적인 미국 쪽 책임자인 (극중에서 은퇴한) 애치슨(Dean (Gooderham) Acheson)까지 포함되는데- 와 군부지도자들은 케네디에게, 현실세계(the real world)를 직시하라며 쿠바를 바로 공격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비판을 가한다. 그리고는 케네디를 유약한 애송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현실세계는 결국 앞의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에 따른다면, 일부 남성들의 세계관에 기초한 부분적인 현실에 불과한 셈이다. 구성주의 관점에서 쿠바 미사일 위기를 분석한 최근의 논문³⁶⁾에 따르면, 쿠바와 전쟁을 주장하는 이들은 아마도 무엇이 미국의 국익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단순히 쿠바를 공격하는 것이 국익일 것으로 가정한 일원화된 사고를 가진 자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끔찍한 위기와 평화로운 결과

(terrible stakes and peaceful outcome):³⁷⁾

안보연구의 새로운 쟁점

34) V. Spike Peterson, 'Transgressing Boundaries: Theories of Knowledge, Gender and International Relations', Millennium 제21집2호 (1992), 197쪽.

35) Peterson, 앞의 글(주34), 197쪽.

36) Mark J. White, 'New Scholarship on the Cuban Missile Crisis', Diplomatic History 제26집1호 (2002), 148-149쪽.

37) 이 섹션의 제목은 Blight and Lang, 앞의 글(주17), 233쪽에서 출발한다. "We are keenly aware of the terrible stakes, but also of the peaceful outcomes".

실제로 쿠바 미사일의 위기는 무엇을 통해서 해결되었는가? 어떤 이는 미국의 즉각적인 검역(봉쇄정책)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할 것이며, 또 다른 이들은 당시 미국의 소련에 대한 군사력의 절대적 우위가 해결의 실마리였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 실제 위기 해결은 영화 속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전쟁을 피하고자 하는 미소양국간의 '책임성의 공유' -비록 적국임에도 불구하고- 에서 비롯되었다.³⁸⁾ 한편으로 위기가 해결된 것은 미소간의 전쟁이 시작되면 이는 결국 핵전쟁으로 이어져 지구 멸망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두 지도자 즉 케네디와 흐루시초프(Nikita Sergeyevich Khrushchchev)가 이미 잘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서로간에 전쟁을 피하려고 했다는 것이다.³⁹⁾ 이를테면, 자신의 단기적 국가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핵무기 사용이라는 인류 공멸의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볼 때 미소양국은 서로를 인정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그들은 비공식적으로나마 대화 채널을 유지하여 사태를 해결하려 하였고, 서로의 체면과 자존심을 존중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특히 미국은 소련에게 미사일 철수의 명분(쿠바를 침공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터키에 있는 미사일을 철수하겠다는 약속)을 제공하였고, 동시에 소련도 미국의 입장을 이해(미국의 터키 미사일 철수를 공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내가 보기에 이러한 해결은 상대방이 처한 정치적 입장과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하는,⁴⁰⁾ 나아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통하여 전 지구의 인류가 가진 여러 문제를 함께 해결하여 나가려는, 전통적 안보 연구에 대한 비판을 가하고 있는 학자들의 지구공동안보(the global common security)에 대한 염원과 관련될 수도 있다.

사실상, 전통적인 안보에 대한 관심과 그 연구(security studies)는 주로 국가안보 연구(national security studies; 미국) 또는 전략 연구(strategic studies; 영국)로

38) Blight and Lang, 앞의 글(주17), 236쪽.

39) Blight and Lang, 앞의 글(주17), 232쪽.

40) 역설적으로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한 것도 일부 이러한 정치적 교호 내지는 상호주의에서 출발하였다는 지적도 있다. 즉, 이미 터키에 미국의 핵미사일에 배치한 것을 안 소련은 같은 맥락에서 쿠바의 소련 미사일 존재를 인정할 것 같은 묵시적 예상을 했다는 것이다. Robert A. Divine, 'Alive and Well: The Continuing Cuban Missile Crisis Controversy', Diplomatic History 제18집4호 (1994), 553쪽.

알려져 있었다. 페미니즘 국제정치학 친영에서 비판을 제기하는 바와 같이, 전통적 안보 연구는 주로 현실주의 관점의 국가중심주의(state perspectives)와 과학적 객관성(scientific objectivity)에 그 뿌리를 두는 것처럼 보인다. 한편으로 볼 때 전통적 안보 연구의 국가중심성은 주로 개인이익과 정치적 공동체로서의 국가 이익은 대체로 일치하며, 이에 따라서 국가안보는 개인안보의 전제조건이 된다.⁴¹⁾ “개인은 국가의 운명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이고 따라서 국가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에서 개인의 안보는 결정된다.”⁴²⁾ 나아가 국가의 존망은 현실적인 힘, 즉 군사력에 의해서 확보되고 지탱되며, 이에 따라 군사력은 안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볼 때 전통적 안보 연구의 과학적 객관성은 주로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인과법칙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인간의 경험을 중시하는 실증주의(positivism)의 학문적 정향에 바탕을 둔 이러한 연구는 실은 “...군사력의 역할에 관련된 축적된 지식(cumulative knowledge)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의 획득을 위해 안보연구는 표준화된 과학적 연구방법론을 따라야만 한다; 용어의 조심스럽고 일관된 사용, 비판적 개념에 대한 객관적 측정 및 공적문서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주장 (등이 필요하다)...”⁴³⁾ 존스(Richard Wyn Jones)에 따르면 이러한 과학적 발견 및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전통적 안보 연구의 핵심은 결국 핵무기의 개발과 보유와 관련된다. “핵무기와 그것이 갖는 함축적 의미에 전통적 안보 연구의 핵심이 놓여있다”⁴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핵무기와 이와 유사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개별적 국민 국가가 전통적 안보연구의 핵심이 된다고 할 것이다.

마치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자들에 의한 현실주의에 대한 비판처럼, 후기 논리 실증주의적(post-positivism)정향을 가진 새로운 안보 연구자들은 전통적 안보 연구의 국가중심성과 과학적 객관성에 대하여 다양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이들에게 있어 국가는 단순한 정치적 공동체에 불과하다. 현재의 국민국가는 19세기의 정

41) Jones, 앞의 글(주23), 98쪽.

42) 황영주, 앞의 글(주1), 56쪽.

43) Stephen M. Walt, 'The Renaissance of Security Studi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제 35집2호 222쪽, Jones, 앞의 글(주23), 100쪽에서 재인용.

44) Jones, 앞의 글(주23), 101쪽.

치적 개념에 불과하며, 국가를 일원화되고 단일한 실체는 보는 것은 시대착오라 비판한다.⁴⁵⁾ 따라서 전통적 정치적 공동체 개념으로서 국가의 안위와 관련되는 안보 담론은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예컨대, 국가가 국민에 대한 안위를 제공해준다는 절대적이며 물리적 국가안보는 존재하지 않거나 허구이며 대신에 (국가) 안보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관심 즉, 암묵적으로 만들어진 혹은 구성된(constructed) 안보 개념의 형성과 같은 곳에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안보와 불안정은 상대적인 것이지, (국가가 갖는)능력의 물질적 배분과 상관없는 것이며...,”⁴⁶⁾ “국가 안보에 대한 이해관계와 행위는 자신들의 사회적 맥락에 위치하는 정체성 문제의 고려 없이는 이해가 불가능”⁴⁷⁾할 수도 있다. 아울러 새로운 안보 연구자들은 전통적 안보연구가 갖는 과학적 객관성에도 깊은 의혹의 눈을 보이고 있다. 우선 이들은 기존의 주류국방 및 안보연구가 주로 과학성이라는 외피를 통해 특정의 정치가 또는 정책결정자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쪽으로만 기여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서 이들은 이 과학적인 안보 담론이 결국 “현존하는 정치적·경제적 현상유지(political and economic status quo)를 위한 이데올로기적 정당화”⁴⁸⁾로 이어진다고 비판한다. 관찰자와 관찰대상, 가치와 연구, 지식과 행위 등의 분리를 주장⁴⁹⁾하는 주류 안보 연구에서는 자신들의 관점에서 보기에 과학적이지 못한 도덕 및 윤리적 담론의 채용, 즉 다른 인식론의 유입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안보 연구가 주로 합리적 개인성에서 출발한 추상적 개인주의(abstract individualism)에 바탕을 두었다면 앞으로의

45) Jones, 앞의 글(주23), 96쪽.

46) Bill McSweeney, Security, Identity and Interests: A Sociology of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1999), 3쪽; Pinar Bilgin, 'Theory/Practices in Critical Approaches to Security: A Opening for Dialogue?', International Politics 제38집 (2001), 3쪽에서 재인용.

47) J. Ann Tickner, Gendering World Politics: Issues and Approaches in the Post-Cold War Era, Columbia Univ. Press (2001), 46쪽.

48) Jones, 앞의 글(주23), 100쪽.

49) Jones, 앞의 글(주23), 101쪽.

안보 연구는 주로 국민국가의 문화, 정체성, 규범 및 이상과 같은 것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⁵⁰⁾ 무엇보다도 존스는 전통적 안보개념에 대항하는 새로운 안보 개념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 제안을 하고 있다. 새로운 안보 개념은 기존 안보 개념을 보다 깊게 하고, 넓히고, 새롭게 하는 것이다. 안보 개념을 깊게 만든다는 것(deepening security)은 지금까지의 안보 개념이 전체성(totality)을 무시하고 부분적 타당성에 집중한다는 비판에서 비롯되었다. 존스는 워커(R.B.J. Walker)와 부스(Ken Booth)의 안보 개념 정의를 빌려서 안보를 단지 군사적 위협에 대한 보호라기 보다는 정치의 원초이자 정치적 삶에 있어 갈등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 강조한다. 이는 결국 인간의 정치적 해방에 도달하는 방식과 관련되는 것으로 안보의 개념을 수정하는 것보다도 관련된다.⁵¹⁾ 안보 개념을 넓게 만든다는 것(broadening security)은 기존 안보 개념이 주로 군사적인 것에 국한되었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특히 냉전 이후 활발하게 논의된 이러한 개념에서 존스는 부잔(Barry Buzan)과 같은 학자들의 인간 총체적인 안보(security of human collectivities)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정치, 사회, 경제, 환경 및 군사적 개념의 안보와 같은 안보개념의 확장을 강조한다.⁵²⁾ 같은 맥락에서 대표적인 포스트 모던 국제정치학자인 워커는 “안보정책의 관심은 정치의 다른 영역에서도 발견되어질 수 있다....안보의 실체는 이미 광범위한 사회, 정치, 경제를 포함하고 있고, 아울러 문화적인 것 또한 포함되어야만 한다”⁵³⁾고 지적한다. 안보를 새롭게 한다는 것(extending security)은 앞에서 언급한 안보 개념을 충분히 수용하여 협력적이면서 공동의 세계안보(cooperative or common world security)개념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안보의 출발은 안보를 깊게 만드는 것과 관련하여 상당한 정치적 문제에서 출발되어야 하는데, 이는 정치적 삶의 변화를 수용하는 정치적 개념의 재정립과 같은 것이다. 예컨대, 지금까지의

50) Tickner, 앞의 글(주47), 44-45쪽.

51) Jones, 앞의 글(주23), 102-104쪽.

52) Jones, 앞의 글(주23), 104-112쪽.

53) R. B. J. Walker, 'the Subject of Security' in Keith Krause and Michael C. Williams (eds). *Critical Security Studies: Cases and Concepts*, Univ. of Minnesota Press, 76쪽. Jones, 앞의 글(주23), 107쪽에서 재인용.

안보는 결국 국가이든 민족 내에서 일원성의 강조(예컨대 외적으로부터 우리 조국과 민족을 지킨다)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안보는 이러한 일원성을 배제하는 다양성의 가치(the value of diversity)를 수용하는 것에 놓여있다고 할 것이다.⁵⁴⁾ 영화에서의 몇몇 에피소드가 새삼스레 기억된다. 하나는 케네디가 군부의 용기(?) 있는 행위에 따라 만약 쿠바를 공격했다면, 미국은 핵의 파괴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라는 가정 하나; 또 다른 하나는 쿠바 위기에서 가장 용기가 있었던 사람으로 평가받은 이가 실은 전쟁을 주창한 군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쿠바의 소련 미사일과 터키의 미국 미사일 철수의 교환을 제안한 노회한 외교관(Adlai Stevenson 유엔주재 미국대사)이었다는 사실⁵⁵⁾이다. 순진하게 보이는 이러한 제안이 미국을 혹은 전 세계를 끔찍한 핵전쟁의 위기로부터 구한 것처럼, (전통적 안보 연구의 관점에서 보면) 순진하게 보이는 후기 논리실증주의자들의 안보에 대한 낭만적 접근이 어쩌면 끔찍한 국민국가간의 대립으로부터 지구를 구하는 현실적 대안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 공동의 안보(our common security):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에서의 포괄적 또는 대안적 안보 개념

영화는 다음과 같은 일면 계몽적인 케네디의 연설로 막을 내린다. “어떤 평화를 찾아야 합니까? 진실된 평화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단지 우리 시대만이 아닌 영원한 평화.... 그러므로 우리의 기본적 공통점은 우리가 이 작은 행성에 공존하고 같은 공기를 마시며 똑같이 2세들의 미래를 소중히 하는 인간들이란 겁니다.” 물론 이 케네디의 연설이 역사적 사실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이 연설에 갖는 진정한 의미는 결국 진실된 평화, 영원한 평화, 작은 행성에

54) Jones, 앞의 글(주23), 112-117쪽.

55) 이러한 점은 영화 속에서 묘사된 것이지만, 실제로 쿠바 미사일 위기와 관련된 연구 논문에서도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Divine, 앞의 글(주40), 560쪽.

공존하는 2세대의 미래를 소중히 하는 인간들과 같은 -어쩌면 진부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명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준다는 것에 있다. 재미있게도 이는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에서 다루는 안보의 이슈와 쟁점을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관련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미 실은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은 진정 우리, 우리의 미래세대, 우리의 지구와 아울러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안전(security)을 걱정하고 있다.

페미니즘 평화연구가 주로 젠더의 이분법에 대한 해체 없이 위치지워진 '여성성'을 강조하는 것에서 출발되었다고 한다면⁵⁶⁾, 후기 논리실증주의자와 제휴한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자들은 젠더의 이분법을 극복하면서,⁵⁷⁾ 남성 정체성의 반영물로서의 기존 안보와 평화개념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카터(April Carter)가 제시한 바와 같이 "활발하게 평화를 만드는 자로서의 여성의 이미지는 기존 남성 우위의 사회적 가치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남성에 의해 발생한 전쟁의 하릴없는 희생자라는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다"⁵⁸⁾는 것이다. 안보와 관련된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안보와 평화와 관련된 연구가 무엇보다도 국제정치학의 핵심적 관심사이기 때문이

56) 페미니즘 평화연구에 대한 주요 개관은 황영주, 앞의 글(주1)의 '가로지르기: 페미니즘 평화연구, 비판 안보 연구 그리고 페미니즘 국제정치학' 부분을 참조하라.

57) 사실상 안보 문제에 있어 젠더를 고려하는 것은 페미니즘의 안보와 평화 연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이라 할 것이다. 즉, "Woroniuk(1999)는 인간안보에서 젠더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성불평등과 성차이가 여성과 남성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안보 요구를 표현하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원을 동원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젠더 관점에서 볼 때 인간 안보에 통합되어야 할 측면들로 Woroniuk(1999)는 다음 몇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둘째, 자원에 대한 통제에 있어서의 성불평등이다....셋째, 권력과 의사 결정에서의 불평등인데....넷째, 여성의 인권의 문제인데....다섯째,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주체로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강조이다...여섯째는 무력분쟁으로...분쟁의 이해와 평화구축을 위한 노력에서 젠더 측면이 중요하다."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여성평화운동에 대한 의식과 발전 방향, 한국여성개발원 (2000), 19-20쪽.

58) April Carter, 'Should Women be Soldiers Or Pacifist?' in Lois Ann Lorentzen and Jennifer Trupin(eds.), Women and War Reader, New York Univ. Press (1998), 35쪽.

다.⁵⁹⁾ 아울러 페미니즘 학자들이 이 영역에 대한 많은 연구를 수행하였기에 풍부한 담론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⁶⁰⁾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만약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이 기존의 국제정치학을 비판한다면, 특히 존재론과 인식론에서 비판을 가한다면, 국제정치학의 핵심적 영역으로 안보와 평화문제를 어떻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가와 관련된다고 하겠다. 즉, 이론적으로 볼 때 안보와 평화의 문제를 달리 보는 페미니즘적 관점은 결국 페미니즘 이론이 기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기존 정치이론에 대한 해체(deconstruction)와 재구성(reconstruction)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⁶¹⁾

1985년 세계여성회의에서는 평화를 "국내와 국제수준의 전쟁, 폭력과 교전상태가 없음을 뜻할 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적 정의를 향유하는 것"⁶²⁾으로 정의한다. 유사한 맥락에서 1989년 국제평화연구협회(International Peace Research Association)의 '여성, 군사주의 및 군축'이라는 연구 그룹도 안보라는 개념을 "환원론적인 군사주의적 안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총체적인 생태학적 뼈대를 가진 평등, 지속 가능성 및 정의에 대한 관심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정의한다.⁶³⁾ 콘웰(Rachel Cornwell)과 그의 동료는 또한 "여성의 개인적 시민적 안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국내외 안전보장 체계를 비군사화하는 것이며, 아울러 평화의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강력하게 헌신하는 것이다"⁶⁴⁾고 주장한다. 일부 여성 운동단체에서는 보다 명쾌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앞의 주장들을 정리한다.⁶⁵⁾ 그렇다면

59) J. Ann. Tickner, 'You Just Don't Understand: Troubled Engagement between Feminists and IR Theorist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제41집4호 (1997), 623쪽.

60) Tickner, 앞의 글(주59), 623쪽.

61) Peterson, 앞의 글(주34), 194쪽.

62) Tickner 앞의 글(주22), 81쪽.

63) Jan Jindy Pettman, Worlding Women, Routledge (1996), 114쪽.

64) Rachel Cornwell and Andrew Wells, 'Deploying Insecurity', Peace Review 제 11집3호 (1999), 413쪽.

65) "우리는 진정한 안전은 다음의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고 단언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인 인간과 자연의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하

이와 같은 개념은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페미니즘의 어떠한 관심이 이와 같은 안보와 평화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는가? 연구자는 이를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이 천착하고 있는 지배의 문제, 국가중심성의 문제 및 분석수준의 문제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작업은 존스가 제안하고 있는 안보를 깊게, 넓게, 새롭게 하는 작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지배의 문제(domination): 페미니즘의 근원성은 여성 해방의 추구에서 출발한다. 달리 표현하여 후기 실증주의자, 특히 비판이론가들의 안보에 대한 관심이 주로 궁극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해방을 목적으로 두는 것처럼, 페미니즘의 안보와 평화에 대한 연구는 궁극적으로는 여성의 종속을 해결하기 위한 해방적 메시지를 안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실베스터(Christine Sylvester)가 지적한 바와 같이 여성적 안보는 포괄적이자 부분적일 수 있는데, 이는 여성 자신의 안보에 대한 기획을 갖기에 반드시 여성이 행위자로 참여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⁶⁶⁾ 페미니즘의 안보에 대한 보다 넓은 의미의 수용은 광범위한 사회구조 속에서 개인, 특히 여성의 안보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서 출발한다. 이에 따라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자들은 보다 구체적인 차원에서 구조적 폭력(the structural violence)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960년대 후반에 제기된 구조적 폭력에 대한 논의⁶⁷⁾는 안보와 평화연구에 있어서 보다 친(親)여성적(gender-friendly)이라 할 것이다. 즉 적극적 평화론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직접적 폭력 이외에도 구조적 폭력 예컨대, 빈곤, 기아,

기 위해서는 음식, 옷, 집, 보건, 교육이 필요하다. -문화적 정체성을 위한 인간의 근본적인 존엄과 존경은 존중되어야 한다. -인간과 자연환경은 피할 수 있는 피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키크와 마고 오카자와-레이, '세계화, 군사주의 그리고 9. 11' 나의 삶에서 우리의 평화를: 군사주의와 여성인권, 국제회의 자료집(2002), 42쪽.

66) Christine Sylvester, *Feminist The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 in a Postmodern Era*, Cambridge Univ. Press(1994), Tickner, 앞의 글(주59), 624쪽에서 재인용.

67) 구조적 폭력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Johan Galtung, *Peace by Peaceful Means*(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강종일·정대화·임성호·김승채·이재봉 옮김), 들녘(2000), 19쪽을 참조하라; 아울러 평화운동에서 구조적 폭력이라는 개념의 도입과 관련되는 논의는 Terry Terrif, Stuart Croft, Lucy James and Patrick M. Morgan, *Security Studies Today*, Polity Press (1999), 70-75쪽을 참조하라.

억압 등을 일종의 폭력으로 보고 직접적 폭력은 물론, 구조적 폭력까지 추방해야 불안정을 제거, 즉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약자로 많은 종류의 억압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은 이러한 구조적 폭력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강력하게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자들은 구조적 폭력의 제거, 즉 적극적 평화를 주장하게 된다. 특히 티커너가 주장한 바와 같이 여성에 대한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은 주로 근대국가체제와 국제체제의 역사적 형성 과정에서 기인했다는 점을 보여 주면서 국가 중심성에 대한 비판과 연결된다.⁶⁸⁾ 보다 추상적인 차원에서는 남성화된 안보 담론(the masculinised aspects of security discourse)에 대한 폭로를 시도한다. 일부 페미니즘 학자들은 기존의 군사위주 국가안보 연구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은 군사화된 안보 및 민족 정체성을 확보(secure)하고자 하는 과정 자체가 이미 젠더화된 담론을 가지는 것에서 연유한다고 본다. 기존의 국가 안보는 결국 일종의 헤게모니적 남성성(hegemonic masculinity)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기에, "전쟁의 수행은 획득될 수도 없는 현실적이지도 않을 것으로 보이는 평화라는 개념을 여성화시켜 평가절하 시키는, 영웅화된 남성성에 의존하고 있다."⁶⁹⁾

안/밖의 문제(state):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이 기존의 국제정치학에 가장 신랄하게 비판을 가하는 영역중의 하나는 국가가 안보의 제공자라는 관점이다. 이를테면 전통 국제정치학의 국내적 질서/국제적 무질서라는 담론은 국외는 폭력이 만연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장'인 반면, 국내는 질서와 안전이 보장되는 쪽으로 국내의 정치를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에 대하여 페미니즘은 국가의 안보와 개인의 안보가 항상 일치할 수 없다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은 안보에 대한 논의가 보다 개인적인 것으로 환원되어야 하며, 동시에 안보(국가 중심의)경쟁에서 보다는(인간 사이의) 협력을 통해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으로 볼 때 설사 국가의 군사적 안보가 확보된다 하더라도 개인의 안보는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고, 여성의 경우는 특히 더욱 그러하다. 예컨대, 여성에 대한 각종 차별, 성폭력 및 인신매매 등은 국가안보와는 상관없는

68) Tickner, 앞의 글(주59), 625쪽.

69) Tickner, 앞의 글(주47), 49쪽.

개인 불안정의 대표적인 경우라 할 것이다.⁷⁰⁾ 다른 한편으로 볼 때 페미니즘 국제 정치학자들은 현 지구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별적인 독립적인 정치체의 이해보다는 전 지구의 공통이익을 위한 협력, 화해 및 조정이 국제정치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⁷¹⁾ 페미니즘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실제 국제관계에서 공감과 연민하는 관계에 대한 강조⁷²⁾ 또는 보살핌의 윤리가 인간사이의 관계에서만 뿐만 아니라 국가들 사이의 국제관계에 까지 녹아들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⁷³⁾ 등이 이러한 점을 보여주는 적절한 예라고 할 것이다.

분석수준의 문제(level of analysis): 페미니즘 안보론의 또 다른 특징중의 하나는 분석의 수준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국제정치학 특히 (신)현실주의가 갖는 분석수준을 거부하면서 다면적·다수준의 안보를 강조하고, 안보는 상호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많은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자들은 안보를 다면적(multi-dimensional)으로 또한 다수준(multi-level)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는데 이는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그리고 환경에 가해지는 폭력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폭력을 이해하고, 이를 함께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⁷⁴⁾ 이를테면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본다면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폭력은 분석의 수준을 뛰어 넘어서 나타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안보를 이러한 방식에서 다면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폭력의 상호 연관성이라는 성격을 볼 때 오히려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⁷⁵⁾ 이와 함께 고려해야 되는 것이 여성이 가진 주변성(marginality)에서 출

70) Tickner, 앞의 글(주22), 59쪽.

71) Tickner, 앞의 글(주22), 59쪽.

72) ‘국가의 안보가 개인의 안보는 아니다: 미국의 군사주의와 기치촌 여성’ 당대비평 제 18집(2002), 91쪽.

73) Juliann Emmons Allison, ‘Peace among Friends: A Feminist Interpretation of the “Democratic Peace”’, Peace & Change, 제26집2호 (2001), 207-211쪽.

74) Tickner, 앞의 글(주59), 624쪽.

75) 예컨대 만약 제 3세계에서 식량의 부족이라는 구조적 폭력의 문제가 발생할 시 여성은 남성보다 더 굶을 가능성이 높고, (식량을 구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Terrif, Croft, James and Morgan, 앞의 글(주67), 90쪽.

발하는 여성적 관점(feminist perspectives)에 대한 이해이다.

여성들은 대부분 국가의 권력 구조에서 주변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또한 안보에 대한 페미니즘의 관점이 주로 여성을 그 중심에 놓기 때문에, (안보에 대한) 정의를 국가 혹은 국제체제에서 시작하기보다는 오히려 개인 또는 공동체에서 시작한다.....이렇게 주변부에서 시작함으로써 페미니즘 학자들은 (다양한) 사회와 역사를 가로지르는 사회적 위계질서에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민감하게 대응하게 되는 것이다.⁷⁶⁾

이러한 맥락에서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은 분석의 방법으로 기존 국제정치학의 위에서 아래로의 방법(top-down)보다는 아래로부터 위로의 방법(bottom-up)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안보에 대한 인간중심 접근 방법(people-centred approach)으로 인종, 계급, 성별 및 정치적 입장의 차이에서 야기되고 있는 다양하면서 중첩된 불안정의 해결이 국제체제 및 국가를 우선시하는 것보다는 인간 또는 여성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⁷⁷⁾ 예컨대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은 기존의 국제정치학에서 다루는 평화와 안보의 문제와 전혀 상이한 방식으로, 여성의 경험과 여성의 상이성(difference)에서 출발하는 관점을 통해, 지배/피지배라는 권력의 문제, 보호자로서의 국가의 문제 및 과학성이라는 외피 안에 숨어있는 분석수준의 문제에 대하여 대안적 개념을 훌륭하게 제시하고 있다.⁷⁸⁾

76) Tickner, 앞의 글(주47), 62쪽.

77) Jill Steans, Gender and International Relations, Polity Press (1998), 126-128쪽.

78) 보다 실질적인 차원의 대안적 안보 논의는 황영주, 앞의 글(주2), 59-63쪽을 참조하라. 여기에서는 나는 ‘포괄적 안보에 관련된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에서의 대안’이라는 제목을 통해 다음과 같은 대안 안보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국가안보에 대한 대안(안보)에서 국내 질서/국내 무질서라는 현 국제정치질서의 담론을 비판하면서, 개별적 국민 국가의 정치적 이해보다는 전지구의 공통이익을 위한 협력, 화해 및 조정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제안보에 대한 대안에서는 기존 경제학이 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구성과 유지에 중심을 두는 것을 비판하면서, 체제보다는 개인이 중심되는 경제를 강조하고 나아가 여성의 기본적 생산활동 이를 태연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 같은 것에도 경제적 가치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궁

그것이 역사적 실제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영화 속에서 오도넬의 부인은 잠시 휴식차 집에 들린 남편으로부터 핵전쟁의 가능성과 그로 인하여 오도넬 자신이 대통령과 함께 안전한 시설로 대피할 가능성에 대하여 듣자 대뜸 다음과 같이 반문한다. "(당신이) 대통령과 숨어 있을 때 나와 5명의 아이는요?" 이때 오도넬 아내의 관심은 가족에 대한 작은 사랑에 국한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녀의 이러한 관심은 전 지구적 평화가 왜 필요한지 역설하는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의 담론으로 확장된다고 할 것이다.

다시 확인하는 '개인적인 것이 국제정치적이다 (the personal is international)' : 글의 마무리

어떤 연구에서는 쿠바 미사일 위기가 외교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적 교훈을 준다고 한다. 또 쿠바 미사일 위기는 국가의 위기 때 실제 관리 능력에 대한 배양과 관련된다고도 강조한다.⁷⁹⁾ 하지만 이미 앞에서 밝힌 것처럼 나는 과학적 객관성이라는 외피를 가진 정책 결정 이론에는 별 관심이 없다. 오히려 나의 관심은 개인적 경험과 관련된 것이다. 2-3년 전 이었던가? 이 영화를 처음 보았을 때의 감흥은 실제로 영화가 다루는 쿠바사태에 대한 자세한 묘사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나는 영화의 근대군대에 나오는 미국 군대의 대규모 기동훈련(manuever)⁸⁰⁾을 대하여 유심히

극적으로 여성에 대한 경제적 불평등 개선을 포함한다. 생태적 안보에 대한 대안에서는 단기적으로 여성들이 환경파괴의 희생자로서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의 해결자로서 정책결정 수준에 평등하게 참여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자연에 대한 인간의 착취적 태도 또는 자연을 보는 관점에 있어 근대성의 기계론적 관점을 젠더관계를 포함하는 지배와 종속의 문제와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논의의 출발은 주로 티커너의 논의를 많이 수용한 것이다. Tickner, 앞의 글(주 22).

79) Blight, Nye and Welch, 앞의 글(주9), 172쪽과 185쪽.

80) 실제 군사주의 연구에 많은 공헌을 한 인로의 최근 저서 제목 또한 Maneuver가 아니던가? Cynthia Enloe, Maneuvers: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Militarizing Women's Lives, Univ. of California Press (2000).

지켜보았고, 아카데미사의 프라모델 비행기를 좋아하였던 나는 항공모함에서 출발하는 비행기가 어떤 종류인가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었다. '코르세어'⁸¹⁾인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가? 나는 일본의 제로 전투기⁸²⁾로 부터 시작하여 미국의 F-14 톱캣⁸³⁾에 이르기까지 항공기를 조립하고 부수고 또 조립하였다. 지금도 기억나는 코르세어기에 붙은 별명은 '일본비행기 잡아먹는 귀신'. 이제야 이해하구 실토하거니와 나의 어린 시절은 이런 '사람 잡아 먹는 무기' 또는 군사주의적 '낭만'이 함께 했다. 5학년 때이었던가? 유신의 끝자락이 나를 훈육하고 있을 때, 이러한 낭만은 방위성금을 통하여 5대의 F-5 팬텀기가 방위성금 헌납기로 TV에 보도되면서 더욱 고조되었다. 나는 그 날 2대의 아카데미⁸⁴⁾ 팬텀기를 샀고, 그 댓가로 (어머니에 의해) 거의 2시간 동안 벌을 섰다. 아내는 다른 관점에서 영화를 보고있었다. 최근 이 영화를 논문의 메타포(metaphor)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시 보았을 때, 쿠바 상공을 정찰 나섰던 U2의 격추이후 "우리 조종사들이 위험합니다. 미국은 미국민을 지켜야 합니다"면서 쿠바 침공을 주장하는 군부의 전쟁론에 대하여 나의 아내는 짜증난 목소리로 이를 간단히 일갈했었다. "(군인들은) 다들 조국과 민족을 지키기 위해 영웅이 되고 싶어하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영웅신화는 실제로 남성성의 깊은 관련성을 맺으면서 남성성을 우월화시키는 사회적 코드로 작동한다.⁸⁵⁾ 아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은 내가 경험했던 전쟁장난감, 유신, 방위성금 등과 교호하면서, 나와

81) "코르세어(Corsair)는 미군의 항공모함 탑재기로 독특한 형태의 날개로 미항공기 역사상 최초로 시속 400마일(시속644km)를 돌파한 기체이다. 2차 대전은 물론 한국전쟁시까지 미해군과 해병대의 주력기로 사용되었다" 이하 프라 모델 비행기에 대한 소개는 Daum 쇼핑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82) "제로 파이터는 2차대전시 태평양 전선에서 일본군이 사용한 기체로 52C형은 중무장 형식이다. 또한 자살 특공대의 기체로도 쓰이기도 하였다."

83) "미해군이 F-4 팬텀2에 대신하는 주력함상전투기로서 개발, 장비한 그루만 F-14A 톱캣트. 거의 같은 시기에 미국 공군의 주력전투기로서 채용된 F-15A 이글과 함께 세계최강 전투기의 하나라고 자랑할 수 있는 80년대 미국의 대표적 전투기로 1970년 시작1호기가 첫비행에 성공하고 1971년 양산화."

84)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 초등학교 3학년 아들 녀석은 모 외국계 할인 매장에서 아카데미 상표가 선명한 전쟁장난감(이번에는 전투 로봇이다)을 구입하고서는 행복해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전쟁 장난감의 일상성과 지속성은 대를 잇고 있다.

아내가, 또는 우리가 젠더화된 그리고 군사화된 국가 중심 안보 만들기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주는 실재가 된다. 그리고 영화 D-13은 그러한 점을 다시 한번 잔인하게 확인해주고 있다.

이 연구는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이 전통적인, 특히 전통적인 국제정치학의 안보 개념을 어떤 방식으로 해체하고 재구성하는지에 대하여 살피는 것에 있었다. 콘(Carl Cohn)에 따르면 여성과 여성성(femininity)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임무와 관련된다. “하나는 해체의 기획(deconstruction project)이며... 다른 하나는 재구성의 기획(reconstructing project)이다.”⁸⁶⁾ 여기에서 아마도 해체는 기존의 질서가 젠더화된 되어 있음을 밝히는 것이며, 재구성은 이란 결국 앞으로 있을 범한 미래에 대하여 보다 나은 대안적 제안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위치와 존재는 현재의 학문과 언어를 해체시키며, 이를 재구성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이 이 주장의 요체라 할 것이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만약 페미니즘의 안보 연구가 주로 전통적인 국제정치학이 갖는 남성적이고 위계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서 인간전체(the humanity)와 지구(the global)의 미래와 희망에 대하여 이야기 해주고 있다면, 이들의 관심 또한 전통 국제정치학이 갖는 기본적 가정들 이를테면 국가 혹은 과학적 객관성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체·재구성하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함을 확인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는 아마도 콘이 생각하는 명제, 즉 페미니즘이 행하는 기존 학문 또는 세계관에 대한 해체와 재구성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달리 표현하여 이 연구는 페미니즘이 보려고 하는 안보에 대하여 조사하면서도 아울러 페미니즘이 기존의 국제정치(학)을 어떻게 해체하고 재구성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천착하고 있다.⁸⁷⁾

85) “남성적 문화에서는 아이들이 강자를 부러워 하는 것을 배운다. 미국 소설 속의 영웅 중 인기있는 인물은 ‘배트맨’과 ‘람보’이다. 여성적 문화에서 아이들은 약자와 반(反)영웅에 대해 동정하는 것을 배운다.” Geert Hofstede, *Culture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세계의 문화와 조직: 문화간 협력과 세계속에서의 생존, 차재호·나은영 역), 학지사 (1995), 134쪽.

86) Carol Cohn, ‘Sex and Death in the Rational World of Defense Intellectuals’, 64 쪽; Linda Rennie Forcey, ‘Women as Peacemakers: Contested Terrain for Feminist Peace Studies’, *Peace & Change*, 제16집4호 (1991), 349쪽에서 재인용.

87) 물론 이러한 해체와 재구성은 정치학적 영화읽기와 관련된다. 사실상 영화가 우리의 일상과 정치를 적절하게 표현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치학(연구)에서 영화에 대한 연구는 일천하다. 정치학자들은 영화가 갖는 정치, 정치

만약 피터슨의 주장대로 페미니즘이 단순히 여성에 관한 것도 또는 여성을 남성의 사회에 끼어넣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⁸⁸⁾ 오히려 페미니즘의 의미는 여성의 경험에서 출발하는 보다 특별하고 나은 미래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과 관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의 안보에 대한 재정의는 페미니즘이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어떻게 세상을 어떻게 달리 볼 것인가라는 문제와도 결부된다 하겠다. 이를테면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적 대안은 “...결국 전쟁, 평화, 갈등, 정의 비폭력 및 갈등 해결을 어떤 방식으로 새롭게 가르칠 것인가에 관련된 문제”⁸⁹⁾와 보다 근접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평범한 진리 또는 사족 하나. 한 국제정치교과서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소련 지도자 흐루시초프와의 의사 전달 경로도 평시처럼 국무부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동생 로버트 케네디와 (평소 친분이 있던) 소련 대사를 경유하는 새로운 경로...”⁹⁰⁾를 통해 위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었다는 평가를 보고, 나는 다시 한번 “개인적인 것은 국제정치적이다” 라는 주장의 유용성을 확인한다.

성 및 정치적 역할에 대하여 주목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논문에서 D-13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정치영화의 정치성에 대하여 주목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콘의 논의가 갖는 해체와도 관련된다. 나는 페미니즘 국제정치학 논의가 기본 안보 담론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기존 연구의 틀과 관심을 영화를 도입함으로써 비틀려 하였다. 이와 관련한 더 자세한 논의는 황영주, 앞의 글(주2)을 참조하라.

88) Peterson, 앞의 글(주34), 205쪽.

89) Lynne M. Woebrle, ‘Silent or Silenced?’, in Lorentzen and Jennifer Trupin, 앞의 글(주58), 346쪽.

90) Goldstein, 앞의 글(주24), 210쪽; 한 연구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쿠바 위기의 해결에는 ‘개인적 채널(private channels)’이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White, 앞의 글(주36), 152쪽.